

碩士學位論文

濟州 流配歌辭 研究

-別思美人曲·續思美人曲·萬言詞를 中心으로-

指導教授 孫 五 圭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孫 基 範

2006年 8月

# 濟州 流配歌辭 研究

-別思美人曲·續思美人曲·萬言詞를 中心으로-

指導教授 孫 五 圭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6년 5월 일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孫 基 範

孫基範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6년 6월 일

심 사 위 원 장 \_\_\_\_\_ 印

심 사 위 원 \_\_\_\_\_ 印

심 사 위 원 \_\_\_\_\_ 印

<國文抄錄>

## 濟州 流配歌辭 研究

-別思美人曲·續思美人曲·萬言詞를 中心으로-

孫 基 範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孫 五 圭

이 연구는 제주의 유배가사인 <別思美人曲>·<續思美人曲>·<萬言詞>에 나타난 제주의 향토문화와 작가의식을 밝히려 하였다.

II장에서는 제주의 역사적 자연적 환경과 경제적 환경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18세기의 제주의 상황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의 제주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본토와 떨어진 고립성은 유배인이나 관리들이 모두 향수를 느끼게 하였다. 이는 작품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작품의 창작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세 가사가 지어진 시대적 배경과 작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III장에서는 유배인의 신분에 따라 주민들의 태도가 달라짐을 살펴보았다. 양반 사대부의 경우에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중인 계층인 경우에는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음이 나타난다.

IV장에서는 가사에 나타난 제주의 향토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속사미인곡>과 <만언사>의 경우 제주도가 아닌 추자도에서 유배생활을 했다. 그러나 제주와 추자는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으며 외부와 단절된 섬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런 조건에서 비슷한 문화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슷한 시기의 다른 시작들을 참고로 하여 제주의 향토문화를 유추해 보았다. 이는 제주 문학의 소재적 측면을 고찰하는 것

---

\* 본 논문은 2006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이다. 제주의 의식주 문화는 가사의 내용과 사료로 유추할 때 궁핍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V장에서는 작품들 속에 나타난 작가 의식을 고찰하였다. 세 작품이 각각 다른 작가 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별사미인곡>의 경우 현실 세계가 아닌 관념의 세계를 형상화 하고 있다. <속사미인곡>의 경우에는 관념과 현실 세계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언사>의 경우에는 현실의 세계가 전반적인 작품 속에 나타난다. 앞의 두 가사는 양반의 작품으로 이전 현실로 복귀 하려는 욕망이 작품 속에 나타난다. 이러한 욕망은 관념의 표현으로 형상화되기도 하고 있으며 <속사미인곡>에서처럼 관념의 표현과 현실의 어려움을 그리기도 한다. <만언사>의 경우에는 중인 계층으로 현실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처지를 형상화 한다. 이를 통해서 현실의 모습을 작품 속에 형상화 하고 있다.

# 목차

## <국문초록>

I. 서론	1
II. 제주의 환경과 작품의 창작배경	3
1. 역사적·자연적 환경	3
2. 경제·사회적 위상	9
3. 작품의 창작배경	14
1) 別思美人曲	14
2) 續思美人曲	16
3) 萬言詞	17
III. 유배인의 신분과 유배상황	20
1. 양반 사대부	20
2. 중인 계층	23
IV. 가사에 나타난 제주의 향토문화	29
1. 주거생활과 의복	29
2. 식생활	35
3. 풍속	41
V. 작가 의식	51
1. 관념의 형상화	51
2. 관념과 현실 공존	54
3. 현실의 형상화	58
VI. 결론	63
※ 참고문헌	67
※ Abstract	70

## I. 서론

제주의 문학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 자료가 극히 드물다. 특히 제주인이 직접 쓴 문집은 찾아보기 쉽지 않으며 제주의 문학이라 일컬을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제주 목사나 다른 벼슬로 제주에 와서 제주에 관한 글을 남긴 것과 유배자가 유배기간 동안 남긴 작품들이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제주의 유배문학은 제주문학의 한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중 유배가사문학을 연구하는 것은 비록 유배문학 전체를 다루는 연구는 아니나 이를 통해서 유배 문학의 일부를 볼 수 있고, 또한 제주문학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제주를 배경으로 하는 유배가사 중 <續思美人曲>·<別思美人曲>·<萬言詞>를 연구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이 세 작품은 18세기를 배경으로 창작된 작품들이다. 이들 작품에 나타나는 사회적 배경들은 18세기를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제주의 문학적 근간을 찾아가는 작업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연구를 통해서 작가는 유배 가사에 나타난 특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며, 크게는 제주문학의 특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이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기 위해 우선 2장에서는 제주도의 역사적·자연적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제주의 역사적 현실과 자연적 여건을 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경제적 여건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서 18세기 전반적인 제주도의 상황을 알아보려 한다. 마지막으로 세 가사의 창작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서 연구 대상 작품의 작가들을 알아보려 한다.

다음 3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18세기의 제주의 환경이 유배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신분에 따라서 살펴볼 것이다. 北谷 李眞儒 와 北軒 金春澤은 양반 사대부의 집안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추자도와 제주에 유배를 당한다. 반대로 <만언사>의 작자인 安肇源의 경우에는 대전별감인 중인 신분으로서 파렴치죄로 추자도에 유배를 간다. 안조원의 경우 죄의 종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우선적

으로 신분적 환경이 유배지에서 나타내는 삶을 다르게 나타낼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3장에서는 두 신분의 차이가 어떻게 가사 속에서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연구 대상이 되는 세 유배가사에 나타난 제주도의 향토문화를 살펴 보려한다. 北軒의 작품인 경우에는 제주 향토문화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논의 되지 않는다. 남은 두 작품 속에 나타나는 제주의 향토문화의 모습을 동시대의 다른 유배자나 위정자의 글을 같이 살펴봄으로써 제주의 18세기 향토문화를 알아보려한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를 배경으로 하는 문학에 나타나는 소재적 측면을 찾아 볼 수 있다. 제주를 배경으로 창작되는 문학의 소재 중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자연 환경이다. 그러나 두 가사에는 유배의 상황에서 산수를 감상하거나 산수를 살펴볼 여유도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러므로 제주의 중요한 문학적 소재인 산수를 제외한 다른 소재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 장에서 가사에 나타난 제주의 향토문화를 ‘住居生活과 衣服’, ‘食生活’, ‘風俗’의 순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다음 5장에서는 작가 의식을 살펴보게 된다. 세 가사 작품에 나타나는 작가의 의식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별사미인곡>의 경우에는 현실을 인식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모두 관념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작품 전체를 차지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관념의 형상화’라는 제목을 붙여 별사미인곡에 나타나는 작가 의식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속사미인곡>의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속사미인곡>의 경우 복현의 경우와는 다르게 관념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함께 공존하며 작품 속에 나타난다. 이를 두 번째 ‘관념과 현실의 공존’이라는 소제목으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만언사>에 나타나는 작가 의식이다. 안조원의 경우 중인 신분으로 관직에 나가 세상을 구한다는 관념의 세계보다는 자신의 현실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작품을 엮어간다. 그래서 세 번째 ‘현실의 형상화’라는 제목으로 이 작품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유배가사에 대한 연구는 작품 개별적인 연구 보다는 유배가사 전반에 걸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에는 개별적인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1) 이러한 연구 속에서 제주 유배가사에 대한 연구는 다른 연구의 한 부분으로 속해 있어서 그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 다만 양순필의 제주유배문학 연구2)가 이루어져서 그 자취를 남기고 있다. 필자의 연구도 양순필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양순필의 경우 표현어휘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작자의식을 살펴보는데 미흡한 면이 나타난다. 이에 필자는 이 부분을 보충하고 양순필의 연구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다른 문인들의 작품을 덧붙여서 18세기 전반적인 제주의 상황을 바탕으로 연구에 임하고자 한다. 제주 유배문학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태이므로 필자의 우문과 더불어 앞으로 더욱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필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 
- 1) 尹貴燮, 「유배가사의 양극」, 『동대논총』 2집, 동덕여대, 1971.  
 金時鄴, 「북천가연구」, 성균관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尹亨德, 「만언사연구」, 단국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崔相殷, 「유배가사의 작품구조와 현실인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3.  
 柳年錫, 「가사문학의 역사적 연구」, 조선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3.  
 李宰植, 「유배가사연구」, 건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金正柱, 「조선조 유배시가의 연구」, 한남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柳成泰, 「만분가와 만언사의 비교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이현주, 「유배가사의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조성향, 「유배가사 고찰」,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2) 梁淳琺, 「濟州流配文學研究」, 제주문화, 1992.



## II. 제주의 환경과 작품의 창작배경

### 1. 역사적 · 자연적 환경

제주도는 한반도의 서남해상에 위치한 섬으로 북쪽으로 목포와의 거리는 91마일, 동북쪽의 부산과의 거리는 169마일, 동쪽으로 일본의 대마도와의 거리는 150마일, 서쪽으로 황해를 사이에 두고 동중국을 바라보고 있다. 섬의 해안선 길이는 254km, 총면적은 1,820km<sup>2</sup>, 동서의 길이는 80km, 남북의 길이는 40km가 된다.<sup>3)</sup> 이와 같은 수치적 위치는 제주도의 역사 속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뒤에 다시 언급하게 되겠지만 제주도는 절해고도의 특성으로 역사적으로 유배지로 자주 이용되게 된다. 심지어는 이민족의 유배지로도 쓰이고 있다. 우선 고려사에 나타난 제주의 기사를 살펴보면서 제주의 변천과 유배지로서의 모습을 살펴보겠다.

탐라현은 전라도 남쪽 바다 가운데 있다. 고기에 말하기를 “태초에 사람도 생물도 없었다. 세신인이 땅으로부터 솟아나 그 주산(한라산) 북쪽 산기슭에 구멍이 있어 모흥이라 하는데 이것이 그 곳이다. 첫째를 良을나, 둘째는 高을나, 셋째는 夫을나라고 하였다. …… 15대손인 고후, 고청에 이르러 곧제 3인이 배를 만들어 바다를 건너 耽津에 이르렀다. …… 신라에 들어오니 왕이 이를 가상히 여겨 첫째를 성주로 …… 둘째를 왕자로 …… 막내를 徒內라 하였으며 읍호를 탐라라 하니 그것은 처음 耽津에 상륙하였기 때문이다.<sup>4)</sup>

고려사 권 57에 나온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삼성신화의 내용이 나타나 있다. 耽羅라는 이름이 신라에 조공을 할 때 耽津에 도착한 이유로 붙여진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때부터 제주는 본토와의 교류를 시작했다.

3) 梁淳秘, 『濟州流配文學研究』, 제주문화, 1992. p. 53

4) 「高麗史」地理志 11, 全羅道 耽羅縣條, “耽羅縣在全羅道南海中其古記云 厥初無人物三神人從地簞出 其主山北麓有穴曰毛興是其地也 長曰良乙那次曰高乙那三曰夫乙那 …… 十五代孫 高厚高淸昆弟三人造舟渡海至于耽津 …… 遂朝新羅王嘉曰稱長子曰星主 …… 二子曰王子 …… 季子曰都內邑號曰耽羅蓋以來始初泊耽津故也”

해독은 진영일의 풀이를 인용하였다.(진영일, <조선시기 제주 <神人> 기사 검토>, 『탐라문화 28호, 2006.)

肅宗 10년 乙酉(1105)에 毛羅를 耽羅郡으로 고쳤으며, 毅宗 때 항복하니 縣을 만들고 수령을 두었다. …… 元宗 11년 庚午에 역적 김통정이 삼별초를 지휘하여 진도에 거처하다 이듬해 신미에 들어와 웅거하며 침략하였다. …… 왕이 김방경에게 명령하여 원병과 합동으로 이를 평정하였다. …… 충렬왕 원년 을해에 원이 다시 탐라라 이름하였다. 2년 병자에는 원이 군민총관부를 설치하였고 3년 정축에는 원나라가 東西阿幕을 세워 소와 말을 방목하였다. …… 21년 을미에 濟州로 고쳤고 목사와 판관을 두었다. 26년 庚子에 東西道에 현을 설치하였다. 이때 원나라 기황후가 또 궁중용 마필을 이곳에 놓아 먹였고, 31년 乙巳에는 도로 우리나라에 소속시켰다. …… 원의 목호들이 강성하여 종종 국가에서 보낸 만호를 살해하고 반란을 일으켰다.<sup>5)</sup>

제주는 명칭이 毛羅에서 耽羅로 후에는 濟州로 바뀌면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삼별초의 항쟁이 중앙의 입장에서 폭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삼별초를 기점으로 제주는 원의 지배에 들어가 100여년을 반환과 원 복속의 반복을 하며 보내게 된다. 원의 황후가 말을 키우기 위해 제주를 이용하고 있음이 나타나 있다. 또한 원에서 이주해온 목호들이 강성하여 고려 정부의 관리들을 살해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이 나타난다. 목호로 온 원의 백성들은 죄인과 이주민이다. 이와 같이 제주도는 말을 키우는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죄인을 유배 보내는 기능도 있었다.

元に 점령된 후 100여 년간 元·明 등 이민족의 유형지였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 「高麗史」에 의하면 곧 元나라가 충렬왕 원년(1275) 4월에 도적 100여명과 동왕 3년 (1388) 12월에 귀순한 元의 達達親王 등 80여 호를 모두 제주도에 이주시켰으며, 그리고 恭讓王 4년 (1392) 3월에 원의 梁王 자손 愛顔帖木兒 등을 제주도에 안치시켰던 일이 바로 그것이다.<sup>6)</sup>

5) 梁淳秘 編, 『耽羅志』,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1. “肅宗十年乙酉改毛羅爲耽羅郡毅宗時降爲縣置令 …… 十一年庚午反賊金通精領三別抄據珍島翌年辛未來據侵掠 …… 王命金方慶等合元兵討平之 …… 忠烈王元年乙亥元復號耽羅 二年丙子元設軍民總官府三年丁丑元立東西阿幕放牛馬 …… 二十一乙未改爲濟州置牧使判官 二十六年庚子設東西道縣是年元奇皇后又放廐馬三十一年乙巳復還于我 …… 元牧子強悍累殺國家所遣萬戶以叛” 해독은 의역이 많아 필자가 직역으로 고쳤다.

6) 「高麗史」卷28 “忠烈王元年夏四月元流盜賊百餘人于耽羅” “忠烈王三年丁丑五月戊戌元流罪人三十三人于耽羅” “忠烈王三年丁丑八月庚辰元流罪人四十于耽羅”  
卷137 “辛禱四十年戊辰十二月帝遣前元使喜山大卿金麗普化等 <중략> 又傳聖旨云征北歸順來的達達親王等 八十餘戶都要教他耽羅住去恁去高麗設知教差人那里淨便居處打落了房兒 一同來回報於是遣

이 민족의 유배지로도 이용되었던 기록이 남을 정도로 제주도는 역사적으로도 유배지로서 두루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시대에까지 이어진다. 조선시대에 제주도에 유배되어 온 사람들은 위로는 왕족·정치인·관리·학자들을 비롯하여 아래로는 京中の 범죄자와 국경 변방 지방의 월경범인에 이르기까지 각종·각양의 죄를 범한 사람들이며, 그 수에 있어서도 실로 많았던 것이다. 그 중 燕山君 때의 金舜孫·洪裕孫, 中宗 때의 金淨·李世蕃, 明宗 때의 僧 普雨, 宣祖 때의 蕭德裕, 光海君 때의 光山府夫人 盧氏와 鄭蘊·宋象仁·李灑, 仁祖 때의 光海君·李健·金尙憲·仁城君, 孝宗 때의 申命圭, 肅宗 때의 宋時烈·張希載·金鎭龜·金春澤, 景宗 때의 申鉉, 英祖 때의 恩彦君·恩信君·任徵夏·趙觀彬·李存中·權震應·任觀周·李眞儒·尹塾, 正祖 때의 趙貞喆, 憲宗 때의 金正喜, 高宗 때의 崔益鉉 등등 당대의 유배인사가 예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제주도에 유배되었다.<sup>7)</sup>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絶海孤島인 제주는 유배지로서 최적의 요건을 갖고 있다. 이는 본토와의 격리성을 갖고 있게 되며, 또한 고립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으로 제주에 대한 인식은 비단 유배가 아니더라도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제주에 오는 것은 멀고 험난한 바닷길을 건너야 했을 뿐 아니라 수일이 걸리는 뱃길이었으므로 안전하지 않았다. 실제로 제주인이 본토를 왕래함에도 종종 표류를 당하게 되어 제주민의 표류기가 실록이나, 문집에 실려 전해지고 있다.<sup>8)</sup> 이러한 현상은 유배자만이 아니라 관리에게도 제주에 오는 길을 달갑게 여기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바로 규암의 경우가 그러하다.

圭庵 宋麟壽는 1526년 수찬을 거쳐 대간으로 있을 때 김안로의 재집권을 막으

典理判書李希椿于濟州修葺新舊可居房舍八十五所”

卷46 “恭讓王四年 壬申三月乙巳 帝置前梁王子孫愛顏帖木兒四人于耽羅使與拍拍太子 等完聚居住”(양순필 『제주유배문학연구』, 제주문화, 1992, p. 9쪽의 내용을 재인용했다)

7) 양순필, 『濟州流配文學研究』, 제주문화, 1992, p. 10

8) 김봉욱·김지홍, 『옛 제주인의 표해록』, 전국문화원연합 제주도지회, 2001. 이 책에는 성종실록에 실린 김배희 중국표류기, 김비의 유구 표류기, 금남집에 실린 금남 최부의 표해록, 연산군 일기에 실린 정희이의 일본 표류기, 중종 실록에 실린 김기손의 중국 표류기, 강연공 일본 표류기, 지영록에 실린 김대황의 표해 일록, 이밖에 장한철의 표해록, 이방익의 남유록 등을 실어 제주인의 표해록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편집해 놓았다.

려다가 제주목사로 좌천, 1534년 병으로 돌아 왔으나 다시 김안로 일당의 미움을 사서 사수로 유배되었다. 1537년(중종32) 김안로 등이 제거되자 예조참의, 승지를 거쳐 병조·예조의 참판을 역임, 1544년 형조참판으로 동지사가 되어 유생들에게 성리학을 강론했다. 그 뒤 대사헌을 거쳐서 1545년 을사사화에 한성부좌윤에서 파직, 청주에 은거중 윤원형·이기 등에 의해 賜死되었다. 성리학의 대가로 선비들의 추앙을 받았다. 청주의 신흥서원, 문의의 노봉서원, 전주의 화산서원, 제주의 굴림서원에 제향, 시호는 문충<sup>9)</sup>이다. 제주의 오현으로 이름난 규암은 제주에 3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목사로 재직했다. 목사로 재직할 당시에 그가 제주에 관한 시를 남겼는데 그의 심리 상태가 담겨져 있다.

濟州有吟

學得詩書三十年	삼십 년간 시경 서경을 배워 익히다
竹符令領濟山川	이제 와서 부절을 받고 제주 산천을 다스리네
一生憂患頭鬢白	근심 걱정 속에 살다보니 머리는 희어졌고
萬里飄零歲月遷	먼 고장 떠돌아 다니며 세월을 보냈네
毒霧瘴煙迷澤國	독무와 장연이 흐릿한 바닷가 나라
鯨波駭浪蹙蠻天	하늘도 쩡그리게 하는 큰 물결 거친 파도
殊方日落離懷苦	낯설은 지방에 온 나그네 심사 더욱 괴로워
渭北江東眼舒穿	위수 북쪽 강동 땅으로만 눈길이 돌아간다 <sup>10)</sup>

제주의 바다는 독무와 장연이 흐릿한 바다이다. 이러한 바다를 끼고 낯선 지방에 온 규암의 심사는 매우 괴롭다. 실제로 규암은 3개월 동안의 짧은 임기를 마치고 다음 목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제주를 떠나버린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다시 유배를 가게 되는 중요한 구실을 제공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그만큼 규암에게 있어서 제주는 백성들을 돌봐야 할 오지가 아니라 오지 말

9) 吳文福, 『耽羅詩選』, 제주문화, 2001. p.458.

10) 송인수, 한국문집총간 24 『규암집』, 민족문화추진회, 1996. 해제는 吳文福의 앞의 책 p. 214를 따랐다.

아야할 유배지와도 다름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제주 목사들의 제주 인식의 큰 줄기 중 하나를 바로 규암의 마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득한 바다로 인해 본토와 떨어진 유배와 다름이 없는 불행의 땅이 바로 제주였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200여년이 지난 18세기에 도 이어진다. 제주의 자연 환경 즉 바다로 가로막힌 공간의 괴리감으로 인한 본토와의 거리감은 항상 본토의 고향을 그리게 하는 향수로 나타난다. 이러한 향수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표현으로도 나타난다.

蘆蜂 金 儼은 영조11(1735)년 4월에 제주에 부임하여 문관으로서 제주에 학문을 진작시켰다. 재임 중 1736년 겨울에 삼천서당을 창건하여 문화 교육 진흥에 기여하였다. 노봉은 영조 13년에 화북진에서 병사했다. 그러자 삼천서당 앞에 흥학비(興學碑)를 세워 해마다 제사 지냈으나 삼천서당이 헐리자 지금은 오현단으로 옮겨져 있다. 화북에서는 그를 기려 공덕비를 세웠다. 노봉도 재임 기간 중에 시를 남겼는데 그의 문집인 노봉문집에 남겨져 있다. 그중에 일부를 보면 바다를 바라보며 본토를 그리고 임금을 그리게 하는 내용이 보인다.

禾北鎮

劃然長嘯立城頭	획연히 길게 숨을 쉬며 성 머리에 올라보니
萬里滄溟闊不流	만리의 푸른 바다 넓어서 흐르지 않고
北望長安何處是	북쪽으로 바라보면 서울은 어디쯤인지
天涯終古逐臣愁	예부터 이 곳은 귀양은 이 시름짓던 곳 <sup>11)</sup>

성머리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며 서울을 그리워하는 노봉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 화북진에 올라 바라보는 제주의 바다는 아득해서 마치 흐르지 않는 것 같다. 이는 본토와의 거리감에서 느껴지는 감상일 것이다. 마지막에는 예부터 귀양온 이들이 시름을 짓던 곳이라는 말로 끝내고 있다. 여기서 귀양자는 다름이 아닌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표현한 것일 것이다. 귀양온 이들의 시름은 곧 자신이 느끼는

11) 吳文福, 앞의 책, p. 309.

시름인 것이다. 문관으로 제주 최고의 관직으로 제주에 왔으나 노봉이 느끼는 감정은 고향을 그리는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이는 역시 제주의 지리적 위치의 조건 때문일 것이다.

咏餅梅

爲把鄉心折一枝	고향을 향한 마음에 매화 가지 꺾어
先春消息傍寒池	먼저 온 봄소식 차가운 연못가에 닿네
澹然相照明窓下	쌀쌀히 서로 비추며 창가를 밝히니
何遜揚州起遠思	양주에서 먼 고향생각 나기에 어찌 손색이 되리 <sup>12)</sup>

위의 시도 노봉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멀리 타향에 와서 관리를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향수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에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한 번 부임하면 마칠 때까지 돌아가기가 힘들다. 이러한 조건은 위정자로 하여금 짙은 향수를 품게 만드는 하나의 매개로 작용하고 있다. 위의 시에서도 양주라는 표현으로 자신이 제주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는 유배자가 아닌 위정자들이 본토와 격리된 제주를 바라본 시선을 살펴 보았다. 위정자들도 제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위정자와는 달리 유배라는 극한 상황에서 제주를 바라보는 유배자들의 시선은 더욱더 절망적일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위정자로서 제주에 부임해도 제주는 먼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지리적 요건 때문에 그들로부터 향수를 일으켰다. 그러나 유배자의 그것은 단순히 향수가 아니다. 절해고도로 추방당한 자신의 처지로부터 얻어지는 고통이 동반되고 있다.

정치적 실패를 경험하고 온 복현의 경우에는 고통이 더욱 컸을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괴로움은 漢詩作 속에서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

12) 吳文福, 앞의 책, p. 256.

偶吟

殘生寂寞滯蠻村	남은 목숨 쓸쓸하게 만촌에 홀로 머물고
每倚孤城望海門	매양 성에 기대어 포구만 바라보네
落木寒潮愁絕處	나뭇잎 떨어져 찬물결 근심은 언제 그칠까
秋來未有可招魂	가을은 오나 가히 죽음은 알 수 없네 <sup>13)</sup>

제주에 머무는 것이 쓸쓸하게 느껴지고 있다. 유배자로서 의당 느낄 수 있는 심정이다. 그러나 쓸쓸하게 머물고 있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닌 “蠻村”이다. 제주도가 남쪽에 있으니 만촌이라 이름할 수 있겠으나 시어의 선택을 중시하는 문인으로서 형식적인 면으로만 ‘蠻’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화적으로 낙후된 제주의 모습이 북헌의 눈으로는 ‘蠻’의 글자가 어울리는 변방으로 보였을 것이다. 이러한 절해고도에 유배를 당한 북헌은 매일 성에 기대어 포구만 바라보고 있다.

지금까지 절해고도인 제주를 인식하는 여러 문인들의 시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제주의 자연환경 중에 문학 작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다로 인해 본토와 분리된 격리성이다. 이러한 격리성은 위정자나 유배자에게 공통적으로 본토를 향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한 해로는 교통의 어려움을 유발하게 되어 제주를 더욱더 고립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가사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난다. <만언사>의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까지 동반되면서 심리적 괴로움과 경제적인 난관이 함께 나타나게 된다. 그럼 경제적 어려움이 일어나는 배경이 되는 제주의 경제적 상황을 살펴보자.

## 2. 경제 사회적 위상

문헌상에 나타난 제주의 경제적 모습은 항상 넉넉지 않다. 실록에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제주는 항상 자연재해를 입어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으로 자주 본토로부터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위치에 놓여 있는 섬으로 나타난

13) 김춘택, 『한국문집총간 185』 북헌집, 민족문화추진회, 1997.

다. 중종 때의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고려 문종(文宗) 12년에 문하성이 아뢰기를, “탐라는 땅이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하여 오직 목도(木道)질로 생활을 영위한다.” 하였다.<sup>14)</sup>

제주의 땅은 척박하고 백성들이 가난하다. 제주에 대한 경제적 위상은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또한 질병도 자주 일어나고 있으니 제주민의 경제적 생활상은 실로 빈약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록에 나타나는 제주에 대한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

굶어 죽은 제주(濟州)의 백성에게 사제(賜祭)하였다. 어사(御史) 황귀하(黃龜河)가 장계(狀啓)하기를,

“섬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매우 많으니, 청컨대 향축(香祝)을 보내고 단(壇)을 설치하여 제사하여 굶어 죽은 혼령을 위로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친히 제문(祭文)을 지어 내렸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아! 탁라(毛羅) 온 고장의 백성이 이런 부진(不辰)한 때에 태어나서 기근을 거둬 당한 지 이제 3년째에 이르고, 게다가 혹독한 염병을 만나 열 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낫지 못하며, 더구나 해외에 떨어져 있는 것이 육지와 달라서 곡식을 모으기가 어렵고 살길을 도모하기도 또한 어려우므로, 온 섬 안이 어쩔 줄 몰라 마치 병화(兵火)를 만난 듯하니, 내가 백성의 임금으로서 당연히 어떠한 생각을 하겠는가? 근심과 번민이 지극하여 내 병마져 모두 잊고 도신(道臣)에게 칙유하여 곡식을 배로 날라다가 먹이게 하였으나 왕래할 때에 순풍을 기다리느라 번번이 지체되게 되고, 이어서 의사(醫司)를 시켜 약물(藥物)을 넉넉히 보내게 하였으나 거의 한 움큼의 물과 같아서 두루 구완하지 못하니, 전후 4년 동안에 굶어 죽고 병들어 죽은 자가 수천을 헤아리게 되고 마을이 텅 비어 경황(景況)이 근심스럽고 가슴아프다. 가없는 우리 백성은 죄가 없고 허물이 없건만, 하늘이 어찌하여 이처럼 혹독하게 재앙을 내리는가? 내 마음을 에이는 듯하여 차라리 내 몸이 당하고 싶으나 그렇게 할 수 없구나. 아! 내 병이 낫지 않고 오래 끄는 중이기는 하나 백성을 위하는 일념(一念)은 조금도 느슨해지지 않아서 공인(貢人)이 오면 문득 질병(疾苦)을 묻고 어사(御史)가 갈 때에는 또 연교(筵敎)를 내려 마음쓰는 것이 부지런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일은 마음과 어그러져서 끝내는 우리 백성을 스스로 보전하지 못하였다. 고요

14) 『新增東國輿地勝覽』, 제 38권, 제주목.



히 생각하면 참으로 덕이 없기 때문이니, 어찌 부끄러워 견디겠는가? 아! 한 지어미가 원한을 품어도 오히려 재앙을 부르는데, 더구나 일만에 가까운 백성이 서로 좇아서 구덩이를 메워 죽은 것이겠는가? 아! 외로운 낮은 의탁할 데가 없어 굶주리고 하늘은 흐려 비마저 축축하니, 귀신의 울음소리가 추추하다. 내 생각이 이에 이르니 더욱 가엾고 측은하여 감진(監賑)하는 신하에게 명하여 터를 가려 제단을 만들고 청작 서수(淸酌庶羞)로 보답하여 번거로운 원한을 위로하게 하였다. 아! 너희 못 귀신은 무리를 데리고 와서 음식을 흠향하고 영구히 재앙을 없애서 우리 남은 백성을 보전하라.”하였다.15)

제주민의 기근과 열병의 고통을 숙종은 비록 궁에 있으나 공인과 어사를 통해 전해 듣고 있다. 곧 임금의 생각하는 제주의 모습은 그 형태와 다름이 없을 것이다. 흉년의 기간이 3년이나 지속되고 기온이 높아 더위에 병을 얻게 되는 제주민의 고통은 매우 심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기근으로 제주에 1만에 가까운 사상자가 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척박한 토양은 제주민들이 충분히 식생활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수확할 수 없게 한다. 제주의 경우 논의 확보도 어려워 주곡인 쌀의 재배도 넉넉지 않다. 이러한 기사는 계속 이어진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진후(診候)를 마치자, 제조(提調) 민진원(閔鎭遠)이 말하기를, “지난해 제주(濟州)에 해마다 잇따라 흉년[凶荒]이 든 것으로 인하여 전후에 내려보낸 미곡(米穀)이 거의 20만 석(石)에 이르므로, 호남(湖南)과 경청(京廳)에 옛날 저장해 두었던 것이 이미 탕갈(蕩竭)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만약 또 흉년이 든다면 다시 접제(接濟)할 방법이 없으니, 이후의 근심을 미리 강구(講究)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의 수령(守令)으로서 체임(遞任)되어 돌아온 자의 말을 듣건대, 본주(本州)에서 만약 돈 3, 4만 냥(兩)을 저축해 두었다가 흉년이 들 경우 백성에게 나누어 주어 미곡(米穀)을 바꾸게 하고, 혹은 물고기와 미역을 사서

15) 『肅宗實錄』 숙종 42년 윤3월 9일 己巳/賜祭濟州民人餓死者。御史黃龜河狀言，島民死者甚多，請送香祝，設壇祭之，以慰飢魂，上許之。親製祭文以下，其文曰：嗚呼！毛羅一域之民，生此不辰，洊罹飢饉，于今三載，加以毒癘所邁，十無一瘳。矧茲絕海，殊異陸地，聚穀既艱，謀生亦難，一島遑遑，如逢兵燹，予爲民主，當作何懷？憂悶之極，渾忘疾疢。勅諭道臣，船粟以哺，而往來候風，每致遲滯，繼令醫司，優送藥物，而殆同勺水，莫能遍救，首尾四年之間，餓死病亡，計以累千，村閭空虛，景象愁痛。哀我赤子，無罪無辜，天胡降災，若是偏酷耶？予心若割，寧丁我躬而不可得也。嗚呼！予病雖在沈綿，爲民一念，罔或少弛。貢人之來，輒問疾苦，御史之往，又下筵教，用心非不勤矣，而事與心違，卒不能自保吾民。靜言思之，良由無德，曷勝慙覲？嗚呼！一婦抱冤，尙且召災。況近萬生靈，相率而填乎溝壑者乎？嗚呼！孤魂無托不其餒，而天陰雨濕，鬼聲啾啾。予念至此，益用愍惻。爰命監賑之臣，擇地爲壇，侑以淸酌庶羞，用慰煩冤。嗟爾衆神，携挈朋儔，來享飲食，永除災沴，保我餘民

육지(陸地)에 내다가 팔게 함으로써 흉년을 구제하는 방도를 삼는다면, 성조(聖朝)의 근심을 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3, 4만 냥의 돈을 어디에서 관비(辦備)하겠습니까? 전부터 전화(錢貨)를 더 주조(鑄造)하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이것을 어렵게 여긴 이가 많았으므로 과연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주(濟州)는 서울과 다르니, 만약 본주(本州)의 목사(牧使)로 하여금 밭을 만한 군관(軍官)과 더불어 스스로 3, 4만 냥의 전화(錢貨)를 주조하게 하여 위급(危急)에 대비(對備)하는 수용(需用)을 삼게 한다면 혹시 편호(便好)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君)이 말하기를,

“진달한 바가 좋은 듯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였다.<sup>16)</sup>

숙종 45(1719)년의 기록이다. 2년이 지난 후에도 제주의 어려움은 변함이 없다. 제주에 흉년이 해마다 잇따라 호남과 경청에 저장해 두었던 곡식이 이미 탕갈 될 정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나타난다. 이러한 지원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제주에 곡식이 잘 되지 않아 식생활의 어려움이 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움이 해마다 일어나는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고 하여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주에서 주조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은 18세기 초의 이러한 기근과 어려움은 18세기 말에도 역시 변함이 없다.

제주목(濟州牧)에 윤음(綸音)을 내리기를,

“우리 나라는 땅이 좁아서 도(道)는 모두 8도이고, 부(府)·군(郡)·현(縣)은 겨우 360개 있다. 별처럼 흩어져 있고 바둑판처럼 펼쳐져 있어서 지도를 펴보면 알 수 있다. 한 번 수재나 한재로 인한 기근이 들어도 관할하기가 매우 편리하지만, 유독 탐라(耽羅) 한 지역만은 바다밖에 외따로 자리잡고 있어서 육지로는 몇 천여 리(里)를 가고 수로(水路)로는 그 곱절이나 가야한다.…… 금년 가을에는 팔도에 큰 풍년이 들어 묘당(廟堂)에서는 구황(救荒)의 정사를 보지 않게 되었으므로, 나의 소의한식(宵衣旰食)하는 일념(一念)도 좀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지난 번에 동지가 지난 다음 수신(守臣)이 비로소 고을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에 밤

16) 『肅宗實錄』 숙종 45년 6월 7일 藥房入診。診候畢，提調閔鎮遠曰：“年前因濟州連歲凶荒，前後下送米穀，幾至二十萬石，湖南及京廳舊儲已竭。此後若又年飢，則更無接濟之策，此後之慮，不可不預講矣。聞濟州守令遞歸者之言，本州若儲置錢三四萬兩，凶年則令民人輩，分受易米穀，或買魚蟹，出陸變賣，以爲救荒之道，則可紓聖朝之憂云，而三四萬兩錢，從何辦得耶？自前有錢貨加鑄之議，而難之者多，故未果，而濟州則與京師有異，若使本州牧使，與可信軍官，自鑄錢三四萬兩，以爲備急之需，則似或便好矣。”上曰：“所陳似好，令廟堂稟處宜矣。”

중에 자리를 차고 일어나 앉아서 그 길이 멀다고 더욱 탄식하였다. 만약 탐라가 바다에 있는 섬이 아니고 육지라면, 멀어도 함경도의 6진(六鎭)이나 평안도의 7읍(七邑)정도만 되도 풍년이 들거나 흉년이 들거나 간에 어찌 이처럼 소식이 늦을 수가 있겠는가? 흉년이 들어도 내가 알 수 없고, 백성들이 곤궁해도 역시 구제할 수 없다. 도민(島民)들도 나의 적자(赤子)들인데 그대들의 부모로서 어찌 그 부모의 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있겠는가? …… 각전(各殿)에 바치는 삭선(朔膳)과 물선(物膳), 삼명일(三名日)에 바치는 방물(方物), 내국(內局)에 바치는 진상 약재(進上藥材), 중앙과 지방의 각 아문과 각 영문(營門)에 진배(進排)하는 물종(物種), 내국 및 각사(各司), 각 궁방(宮房) 노비 등의 신공(身貢)을 특별히 모두 기일을 물려 받거나 견감하여 진자(賑資)로 그대로 보태도록 하라. 이미 자전(慈殿)의 하교도 받았으니, 자전과 자궁에 바치는 방물·물선·삭선도 모두 기일을 물려 받거나 견감하도록 하라. 올해의 정퇴조(停退條)를 내년의 정퇴조까지 합쳐서 내년 가을에 독촉하여 바치도록 하는 것도 마땅히 구휼해야 할 것이다. 내년 정퇴조는 그대로 정퇴하도록 허락하라. ……17)

제주의 기근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나 교통의 불편함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그 상황의 보고가 늦어지고 있으며 또한 도와주려해도 타지방과 달리 험난한 해로로 인해 그 공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의 이러한 잦은 기근으로 위정자 즉 임금은 제주의 세를 탕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탕감 또한 부패한 관리들로 인하여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의 경제적 상황은 좋지 않다. 잦은 기근과 기후와 풍토에 따른 질병으로 생산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고 이러한 상황은 식생활에 있어서 악조건으로 나타났다. <만언사>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다.

17) 『正祖實錄』, 정조 8년 11월 29일, 下綸音于濟州牧曰: “我邦壤地褊小, 道凡有八州, 府郡縣僅三百六十有奇. 星羅碁布, 可按圖而知已. 一有水旱饑饉, 管領甚便而獨耽羅一域, 僻在海外, 陸行幾千餘里, 水路則倍之. …… 今歲之秋, 八路大熟, 廟堂之上, 無事乎荒政, 惟予宵旰一念, 亦庶幾小弛矣. 廼者陽至之後, 守臣始以州饑聞. 於是乎丙枕蹶坐, 益歎道塗之云邈. 若使耽羅, 不海而陸, 遠止於北之六鎭, 西之七邑, 則豐歉之間, 豈此之遲乎? 歲饑而莫予之知也, 民窮而亦莫之救也. 島民亦吾赤子, 爲爾等父母, 烏在其父母之責也? …… 各殿朔膳、物膳, 三名日方物、內局進上藥材、京外各衙門各營門進排物種、內局及各司各宮房奴婢身貢, 特併停減, 留補賑資. 旣承慈教, 慈殿宮所獻方物、物膳、朔膳, 亦併停減. 今年停退條之並與明年條, 而督納於明秋, 亦所當恤, 明年條仍許停退. ……”

### 3. 창작 배경

#### 1) 別思美人曲

北軒 金春澤은 현종 11년(1670)에 태어나 숙종 43년(1717)인 47세에 세상을 마쳤다. 그의 가계는 당대 대표적인 권문세가이면서 노론의 중심가문으로 숙종 연간에 淸風 金氏家 · 驪興 閔氏家와 더불어 三戚으로 지목되었는데, 병권·경제권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의 증조는 병자호란 때 강화도 순절사인 金益兼이며, 인경왕후의 부친이면서 당대에 병권과 경제권을 잡고 있었던 光城府院君 金萬基가 그의 조부이며, 호조판서를 지낸 晚求窩 金鎮龜가 그의 부친이다. 또한 구운몽과 사씨남정기의 저자인 西浦 金萬重의 從孫이기도 하다.<sup>18)</sup>

북헌의 나이 20세(1689) 때에 己巳換局이 일어나 대외적으로는 仁顯王后를 폐비하고 張禧嬪이 왕비로 책봉되었으며, 남인이 득세하게 되어 宋時烈과 金壽恒이 賜死되었다. 대내적으로는 從祖父 김만중은 남해로 유배되고 부친 김진구는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仲父 金鎮圭는 거제도도 유배되고 叔父 金鎮瑞는 진도로 유배되었으며, 族曾祖 金益勳은 고문을 당하다 죽었으니 이 때가 김씨 가문의 최대의 고난기였다.<sup>19)</sup>

22세(1691) 때에 부친을 모시러 제주에 다녀갔다. 25세(1694) 때에 인현왕후를 복위시키려다 가담자 20여 명과 함께 투옥되었는데, 이것이 甲戌獄事이다. 국문을 하였으나 誣告임이 드러나 풀려났다. 28세 때에 金川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에 방면되었다. 다시 숙종 32년(1706) 37세에 해남으로 유배되었고, 동년 8월 제주도에 이배되었다.

북헌이 제주에 와서 유배지로 처음 선택한 곳은 그의 아버지가 머물던 곳이다. <北軒集>에 그 당시의 상황이 나타난다.

18) 부수상, 「北軒 金春澤 <囚海錄>의 一研究」, 성균관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2.

19) 부수상, 앞의 논문.

지난 己巳(1689)에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壬人에게 죄에 얽혀 제주에 유배되었다. ……不肖  
 춘택이 또 전의 임인의 당에게 물어 뜯겨 미처 탈상을 하지 못했는데 제주에 유배되었다. ……  
 드디어 배에서 내려 성에 들어갔더니 주 사또가 범부의 관문을 살피고는 곧 나를 민가에 주거  
 를 정하려 하면서 살소 싶은 곳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말하기를 “그렇다면 오직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일찍이 계셨던 곳이어야겠습니다.”고 하여 드디어 가서 살게 되었다.<sup>20)</sup>……

그의 나이 39세(1708) 때 덕산으로 유배되었던 숙부 김진규의 放歸田里 소식을  
 들었다. 이 해에 언문으로 79節 158句 1114字로 된 <별사미인곡>을 지어 송강  
 정철의 <前後思美人曲>에 화답하였다.<sup>21)</sup>

북헌은 論詩文을 지어 여러 시작과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  
 <별사미인곡>에 관한 내용이 나타난다.

송강의 전후사미인사란 것은 한글로 지은 것이다. 그가 쫓겨나 근심하고 괴로워하였기 때문  
 에 임금과 신하가 만나고 헤어질 때를 남녀의 사랑과 미움사이에 비유함을 취하여, 그 마음의  
 충성됨, 그 지조의 깨끗함, 그 절개의 곧음, 그 말의 아름다움과 간곡함, 그 가락의 슬픔과 순  
 정함은 굴평의 이소와 거의 쫓아 짝 할만하다. …… 나는 제주에 와서 또 한글로 <별사미인사>  
 를 지어 송강의 두 사에 追和하였다. 그 대강의 뜻은 남자가 일찍이 백옥경 광한전에서 군자를  
 모시며 충애를 받고 교태를 부렸는데, 비록 재앙을 만나 배척되어 쫓겨났지만, 또한 반드시 영  
 원히 상처를 입지 않기를 묘사하였다. ……즉 賤臣이 오늘 그렇게 재난을 입고 있는 것 그대로  
 이다. 지난해에 나를 두고 대절하여 기록한 공사에 말하였기를, “…… 가세의 처지로서 성장을  
 스스로 소홀히 하고 정성스러움을 실로 아침저녁으로 좌우에서 모시는 신하보다 더 하였습니  
 다. 항상 임금 사랑하기를 아버지와 같이 여길 것을 마음속에 스스로 맹세하여 왔습니다.”고 하  
 였다.<sup>22)</sup>

20) 金益洙 譯, 「北軒集-濟州記錄-」,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부, 2005, p. 258. 濟州東泉謫居記 “往歲  
 己巳先君子爲壬人所構謫濟州……不肖春澤又被前壬人之黨之齟齬未及釋衰而謫于濟……既下舟入城則州使  
 按法府關文將安接余于民舍問所欲居余曰其惟先君子之嘗所居焉者乎遂就而居之……”

21) 부수상, 앞의 논문.

22) 金益洙 譯, 앞의 책, p. 394, “松江前後思美人祠者以俗諺爲之而因其放逐鬱悒以君臣離合之際取警於男  
 女愛憎之間其心忠其志潔其節貞其辭雅而曲其調悲而正庶幾追配屈平之離騷……余來濟州又以諺作別思美人  
 詞追和松江兩詞其大意以爲彼娘子猶嘗陪侍君子於白玉京廣寒殿寵愛嬌態則雖遇災殃而被斥逐亦不必永  
 傷……卽賤臣今日所遭罹者然也記余頃年置對之辭有曰……以家世處地不容自疏生成保全其 恩罔極之故斷

북헌은 송강의 양사미인곡을 굴원의 이소에 비하고 있다. 또한 그의 가사는 송강의 가사에 추화하는 형식으로 지어지고 있어 송강의 영향을 받았음이 나타난다. 또한 임금 사랑하기를 아버지와 같이 여기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이러한 마음이 가사를 지은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의 배경으로 북헌의 <별사미인곡>은 송강의 가사의 형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으며 그 안에서 임금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뒤에 작품을 분석하는데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 2) 續思美人曲

北谷 李眞儒는 경종 10년(1669) 정종의 10세 손으로 태어나 영조 6년(1730)에 옥사하였다.

37세(1705)에 진사시에 급제하였고, 2년 후 별시 문과에 급제하면서부터 그는 많은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다. 46세에 부교리에 임명되었고 계속해서 수찬, 정언, 헌납 등을 역임하는 동안 노론에 격렬히 대항하는 소론의 과격파로 알려져 있다.<sup>23)</sup>

숙종은 1717년 세자가 병약한데다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시 좌의정이던 노론 영수 이이명에게 숙빈 최씨의 소생인 연잉군을 후사로 정할 것을 부탁했다. 또한 그 해에 연잉군으로 하여금 세자를 대신하여 세자대리청정을 명했다. 연잉군의 대리 청정이 결정되자 소론측이 흠을 잡아 세자를 바꾸려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래서 이때부터 세자 균을 지지하는 소론과 연잉군을 지지하는 노론간의 당쟁이 격화되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세자 균(경종)은 숙종이 즉자 왕위를 이어 받아 등극하였다.<sup>24)</sup>

---

斷衷惻實有加於朝夕左右之臣常以愛 君如父自誓於心”

23) 이현주, 「유배가사의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24) 趙誠香, 『流配歌辭 考察』, 수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경종은 즉위와 동시에 자신의 동생 연잉군을 왕세자로 책봉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소론의 반대 상소가 계속되었는데, 특히 신축년 12월 김일경을 위시한 이진유 등의 맹렬한 반대로 인해 연잉군은 급기야 ‘辭封王世弟疏’를 5차례나 올리게 되었는데, 이를 일러 ‘辛丑疏’라고 이른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진유 등 소론파에 대한 연잉군의 증오는 점증되었다.

노론측은 처음에 대리청정을 요구하였다가 전국 유생들의 반발로 청정 명령을 거두라는 청을 하고 다시 청정 명령의 하교가 내려지자 청정을 요구하였다가 명분이 좁아지자 다시 청정 요구를 거둬들였다. 이 같은 행동은 소론의 입지만 강화시켜 주었다. 이 일로 왕과 백성들의 신임을 얻어 입지를 다진 소론은 대리청정에 앞장섰던 노론 사대신을 탄핵하여 귀양을 보내는 辛丑獄事를 일으켰다.

이듬해에는 목효룡이 노론 명문자제들이 환관과 궁녀들을 결탁하여 왕을 죽이려고 했다고 고변했다. 이 고변을 계기로 壬寅獄事가 일어나 조태제가 사사되어 노론 4대신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그 외에도 170여 명의 노론계 인사들이 살육되거나 가혹한 형벌을 받았다.<sup>25)</sup>

두 사화를 일컬어 ‘신임사화’라고 하는데 이를 일으킨 소론은 영조가 즉위하자 그 지지 기반이 튼튼하지 못했다. 결국 영조는 소론의 영수 김일경과 목효룡 등 신임사화를 일으킨 대신들을 숙청한 다음 1725년 동조한 6명을 귀양보냈다. 이에 동조한 이진유도 6인에 포함되어 유배를 가게 된다.<sup>26)</sup> 이 때 이진유는 사신으로 청나라에 갔다가 귀국하는 도중 압송되어 나주에 유배되었다가 추자도에 이배되었는데 <속사미인곡>은 이 무렵에 지은 것이다.

### 3) 萬言詞

<만언사>의 작가는 이본에 따라 안도은(떡남본), 안도안(설태본), 안도원(가람본), 안도원(가람본·동양문고본), 안조원(가람본), 안도환, 안도환, 안조환 등으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 그

25) 이성무, 『조선시대 당쟁사 2』, 동방미디어, 2000.

26) 조성향, 위의 논문.

런데 비교적 널리 쓰인 안도원, 안도원, 안조원은 하나의 이름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이를 대입하면 ‘안도원→안조원→안조원’으로 음운변화 과정이 이루어졌음을 상정할 수 있다. 가람본에서 작가명이 엇갈려 쓰인 까닭은 바로 이러한 사정 때문으로 여겨진다.<sup>27)</sup>

위와 같이 <만언사>의 작가에 대한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윤성현이 이에 영·정조 시대의 구개음화 현상을 빌어 작자를 안조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필자도 윤성현의 설을 따라 작자를 안조원으로 칭한다.

작자 안조원은 중인 계층인 대전별감으로서 문헌상에 나타난 기록은 전해지는 바가 없다. 그러나 가람본 후기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대전별감 안조원은 그 용모와 풍채가 뛰어나고 문장 필법이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 또 언변이 뛰어나고 총명하여 임금에 극히 사랑하므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였는데, 안조원이 이를 믿고 교만하더니 마침내 대왕의 도장을 도용하는 일이 발각되어 사형에 처할 경우였으나 전일의 총애를 생각하여 추자도에 종신 유배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생환 기약이 없어진 안조원은 <만언사>를 지어 본가로 보냈고 이는 대전 상궁이었던 그의 숙모와 사촌누이는 물론 여러 궁녀들에게까지 전해졌다. 어느 날 임금이 이를 읽어가며 오열하는 궁녀들의 모습을 보고 그 날로 안조원을 해배하고 전날의 소임을 다시 주었다고 한다.<sup>28)</sup>

이를 통해서 안조원은 중인계층으로 어인도용 사건으로 추자도에 유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두 작품의 작가와는 다르게 안조원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파

27) 윤성현, 「동양문고본 만언사 연구」, 『열상고전연구』 21호, 2005.

28) 이현주, 앞의 논문, 가람문고본 필사자 해설은 이현주의 논문에서 재인용한다.

정모조의 디전별감 안조원이 용피뵝승설이요 풍취동인하며 문장필법이 사람을 놀리고 또 언변이 유여하고 총명영오야 어전의 근시하미 상의 영합기를 잘하미 미야지 그림자 좃듯하니 상이 극히 사랑하니 주야근시로 사환하시고 상사하시는 별네자못 형츰하샤 맛참니 벼슬을 주고져 하시니 모든 동녘 크게 불어워하나 맛지 못하를 흔하더니 도원이 상충을 밋고 양양자득하며 사람의게 교만하더니 문득 어인을 도적하여 조롭하고 일이 발각하니 그 죄 반다시 영형으로 죽을 거시로되 상이 전일과도이 총인하시든 고로 측은으로 감사하여 제주절도의 정비하시니 평칭 칭전의 사치말나 하신 고로 칭환할 기약이 업스니 글을 지어 본가의 보나이니 도원의 숙모와 사촌누의 다 디전상궁이라 이 글을 보며 슬허하니 상이 위연이 누상의 올라 비회하시며 보시니 무수한 궁녀 둘러안져 혼 칩을 둘러보고 두낫 상궁은 오열체웁하고 모든 궁녀는 손뼉쳐 간간 절도하며 혹 탄식하고 칭찬하야 자못 분분하거늘 상이 고이히 녀기사 환시로 하여곰 그 칩을 가져오라 하사 익히 드르시고 지은 사람을 무르시니 알외되 죄인 안도원의 글이라 알외오니 그 문장의 기틀과 번사의 직담을 식로이 사랑하사 즉일 방송하시고 즉시 옛 소임을 주사 천문의 근시하사 천운의 호탕하심과 도원의 지죄 일세의 유명하더라



렴치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고 유배를 당한다. 두 작가와 다른 신분은 유배지에서의 생활에서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양상은 바로 다음 장에서 살펴볼게 될 것이다.

### Ⅲ. 유배인의 신분과 유배상황

#### 1. 양반 사대부

北軒과 北谷이 보여주는 유배지에서의 삶은 비록 유배자라는 짐을 지고 있으나 안조원의 경우와는 삶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별사미인곡>의 경우에는 유배지에서 겪는 삶의 양상이 작품에 투영되지 않았으나 그의 문집에 나타난 글을 보면 안조원의 경우와 확연히 다름이 나타난다. 앞에 인용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인용한다.

드디어 배에서 내려 성에 들어갔더니 주 사또가 법부의 관문을 살피고는 곧 나를 민가에 주거를 정하려 하면서 살소 싶은 곳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말하기를 “그렇다면 오직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일찍이 계셨던 곳이어야겠습니다.”고 하여 드디어 가서 살게 되었다.<sup>29)</sup>

북헌의 경우 적소에 도착해서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안조원의 경우에는 거처를 정하지 못해 결국 관리가 아무 곳이나 떠넘기고 가는 장면이 나타난다. 북헌의 이러한 대우는 집안의 배경을 통해 일어나는 대우일 수도 있다. 또한 북헌의 아버지가 제주에 유배왔을 때 남긴 여건들이 북헌이 대접 받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요인은 북헌의 신분이 양반이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북헌의 경우에는 가사 속에 삶의 모습이 투영되지 않았으나, <속사미인곡>의 경우에는 유배지에서의 삶이 나타난다.

石機의 비를 먹고 島中의 드러가니  
村落이 蕭條하야 수십호 어가로다  
풍우를 무릅쓰고 蝸室을 츠즈드니

29) 金益洙 譯, 「北軒集-濟州記錄-」, 전국문화원연합회제주도지부, 2005.

茅茨는 다 늘니고 竹窓의 無紙호대  
床床 屋漏는 모른대 전혀 업다

北谷이 추자도에 처음 들어가서 보니 수십 호의 촌락에 불과한 어촌이다. 비바람이 부는 것을 피해 방에 들어가니 띠지붕도 다 날리고 방도 젖어 있다. 추자에 처음 도착해서 적거지에 당도한 그의 관찰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적거지의 초라함을 보여주고 있다. 양반으로서 삶을 살아온 작자에게 이러한 곳에 거처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적거지에서의 어려움은 다음으로 계속 이어진다.

말만흔 좁은 방의 蚤虱도 만홀시고  
팔척 장신이 구버들고 구버나며  
다리를 서려누워 긴밤을 새와나니  
舟中の 적신 의복 어너 불의 툄벼오며  
일행이 飢渴흔들 무어스로 구홀손고

좁은 방에 이가 많고 집마저 작아서 팔척장신이 굶어서 나고 들고 있다. 눕기도 불편하다. 젖은 의복을 말릴 땀감도 없으며 배고픔을 달랠 끼니도 없다. 적거지에 처음 도착해서 찾아온 어려움은 작자로 하여금 괴로움을 표출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괴로움은 처음 도착해서 얻은 괴로움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 북곡의 경우 유배지에 도착해서도 먹을 양식이 남아 있어 끼니를 때우고 있다.

行囊을 썰어내니 數斗米 뿐이로다  
白粥을 뿌어내여 둘너 안자 療飢호고

자신이 챙겨온 짐에 쌀이 남아 있어서 요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후에 살펴볼 안조원의 경우에는 그러한 여력도 없어서 유배지에 당도할 때부터 허기에 힘들어 하게 된다.

유배자가 유배지에서 받는 생활의 고통은 쉽게 이겨낼 수 없다. 경제적으로 윤택했던 삶을 바탕으로 바라보는 유배지에서의 생활은 그 자체가 고통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곡이 그리고 있는 유배지의 모습이나 유배지의 생활은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의 현실보다는 확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다 해도 유배지의 생활이 힘들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생활의 어려움은 어느 신분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유배지에서 겪는 주민들과의 마찰은 북곡의 경우와 안조원의 경우에서 미루어 볼 때 다르게 나타난다. 북곡의 경우에는 위리안치 유배자로서 주민들이 집을 마련해 주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容膝 數間屋을 草屨호를 經營호식  
 도중의 모든 백성 盡心호여 完役호니  
 燔土 運瓦호던 창화현 풍속일다  
 制度는 湫隘호나 거처는 蕭酒호다  
 偃仰 屈身호미 이제야 粗安호다  
 感君恩 삼자를 壁上의 대서호고  
 望美軒 편액은 도중의 뉘 모로리  
 종일 閉戶호고 朱書를 披閱호니  
 義理 무궁함을 늑게야 씨드롭다

유배자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추자섬의 도민들이 일을 하고 있다. 즉 죄인의 신분이라도 북곡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노역을 해서 허름한 집을 고쳐주고 있다. 유배자는 편안한 주거지를 만들고 나서 문을 닫아걸고 자신은 朱書를 읽으면서 유배지에서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는 유배지에서 오히려 자신의 학문을 완성시키고 창작활동에도 전념할 수 있는 공간적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닫힌 공간에서 지내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나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안조원의 경우와는 다른 유배생활을 보이고 있다.

북헌의 경우에는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다. 북곡의 경우에도 주

민과의 마찰을 통한 고통은 작품 전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주민들이 북곡의 거처를 마련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작품 속에 나타나 있다. 이는 이들의 신분이 양반이기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안조원의 경우는 이들의 상황과 다르다.

## 2. 중인 계층

萬言詞는 유배문학으로서 가장 異彩를 띤 장편가사인 것이다. 작자는 그냥 안도원으로 알려지기도 하고 혹은 정조조의 安肇煥으로도 傳할 뿐, 아직 그 상세한 고증은 되어 있지 않다. 허나 이 가사에 대한 단편적인 逸話는 남아 있다. 그것은 작자가 어떤 당쟁과 같은 정치적인 관련성으로 귀양간 것이 아니고, 會計關係의 실수, 다시 말하면 일종의 破廉恥罪로 유배되었다는 것이다. 이 야사적 일화가 사실이라면 작자는 중인계급이었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과연 작품을 정독해 보아도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혹은 정적의 모함으로 流謫되었다는 암시는 전혀 엿볼 수가 없다. 대개 정치적 유배인 경우에는 자기의 무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정적에 대한 복수심과, 그러면서도 애오라지 군주에 대한 일편단심을 표로하는 것이 공통적 특징이요, 또 현존한 유배시가가 거의 그렇다. 허나 이 작품에는 오직 군에 대한 충성을 재서약하는 것은 잘 표현되었으나, 이 절도에서의 원이 억울하다든가 또는 자기는 결백하다든가 하는 것은 묘사되어 있지 않다"<sup>30)</sup>

장덕순이 언급한대로 <만언사>는 중인 계층의 사람이 파렴치죄로 추자도로 유배가서 창작한 장편 가사이다. 중인 계층인 유배자의 어려움은 유배를 당한 심리적 고통도 포함되어 있으나 의식주에 얽힌 지극히 현실적인 것에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지극히 현실적인 고통의 토로는 북곡의 경우에도 나타나긴 하나 안조원의 경우처럼 치열하지는 않다. 그러한 생활상의 차이 이외에도 <만언사>에서 유배자가 보이는 고통은 주민과의 마찰을 통해서 일어나는 고통도 동반하고 있다. 이는 작자 안조원이 사대부 신분이 아니라 중인 계층인 데서 발생하는 차이일 것이다. 이 장에서 살펴볼 것은 중인 계층인 유배자가 겪는 생활상이 아니라 주민과의 마

30) 장덕순, 『國文學通論』, 신구문화사, 1976, pp. 374-375.

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고통의 문제이다. 즉 작자 안조원과 추자도민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출몰사생 삼주야에 노 지우고 닳을 지니  
수로 천리 다 지내어 추자섬이 여기로다  
도중으로 들어가니 적막하기 태심하다  
사면으로 돌아보니 날 알 이 뉘 있으리  
보이나니 바다ियो 들리나니 물소리라  
벽해상전 갈린 후에 모래 모여 섬이 되니  
추자섬 생길 제는 천작지옥이로다  
해수로 성을 싸고 운산으로 문을 지어  
세상이 끊겼으니 인간은 아니로다  
풍도섬이 어디메뇨 지옥이 여기로다

유배자가 추자도에 도착해서 느껴지는 심상을 표현한 것이다. 사방을 둘러 봐도 아는 이 없고, 보이는 것은 바다요 들리는 것은 물소리뿐이다. 본토와 떨어진 괴리감은 유배자에게 추자섬이 마치 지옥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그 곳은 인간 세계에서 끊어진 생지옥이다. 실제로 유배자가 겪어야 할 추자도에서의 생활은 평소에 자신이 겪지 않을 수도도 당하면서 생지옥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되어간다. 이는 자신의 신분이 낮기 때문에 돌봐줄 이 하나 없는 데서 오는 심적 고통이 발현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유배자의 심적 고통은 유배생활 시작과 동시에 시작된다.

이집가서 의지하자 가난하다 핑계하고  
저집에가 주인하자 연고있다 칭탈하네  
이집저집 아모덴들 적객주인 뉘종달고  
관력으로 핍박하고 세하득이 말았으니  
관차더러 못한 말을 만만할손 내가 듣네  
세간 그릇 흘던지며 역정내어 하는 말이  
저 나그네 헤어보소 주인 아니 불상한가

이집 저집 잘 사는 집 한 두 집이 아니어든  
관인들은 인정받고 손님네는 흑언들어  
구태여 내 집으로 연분 있어 와 계신가  
내 살이 담박한 줄 보시다야 아니 알가

도착해서 적거지를 정하는 데서부터 주민과 마찰이 일어난다. 이집 저집 의지하려 해도 가난하다 핑계하고 연고 있다 거부한다.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공사를 해주던 <속사미인곡>의 경우와는 매우 다르다. 여기 저기 거부를 당하자 결국 관리는 역지로 유배자를 떠넘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은 유배자의 신분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기분대로 세간 그릇을 던지면서 마음껏 애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은 비단 신분적 문제만이 아니라 유배자의 죄가 과렴치 죄에 연유한데서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으나 일단 신분적인 차이를 우선으로 생각한다.

어와 민망하다 주인박대 민망하다  
아니 먹은 헛 주장에 욱설조차 비경하다  
혼자 말로 군말하듯 나 들으라 하는 말이  
건너집 나그네는 정승의 아들이요  
관서의 아우로서 나라에 득죄하고  
절도에 들어와서 이전 말은 하도 말고  
여기 사람 일을 배와 고기 낚기 나무 베기  
자리치기 신삼기와 보리 동냥 하여다가  
주인양식 보태는데 한 군데는 무슨 일로  
하로 이틀 몇날 되되 공한 밥만 먹으려노  
쓰자하는 열 손가락 꿈작이도 아니하고  
걸자하는 두 다리는 움작이도 아니하네  
썩은 남게 박은 끝가 전당 잡은 좃대런가  
종 찾으런 양반인가 빛 받으런 책주런가

유배자는 궁중의 하급 관리로 허드레 일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냥 세월을 괴로워만 하며 보내는데 주인이 이러한 편잔을 준다. 욕설도 비경하고 공밥만 먹는다고 하고 있다. 무능력한 유배자가 종 부리는 양반도 아니고 돈 받으려온 책주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며 일을 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만일 유배자의 신분이 사대부였다면 이러한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건너 집 나그네는 정승의 아들이라서 나라에 죄를 얻어 유배를 왔는데 갖가지 허드렛일을 하는데 유배자는 중인의 신분으로 공밥만 먹으려 든다고 편잔을 주는 대목에서 신분에 따른 대우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정승의 아들도 허드레 일을 배워서 삶을 영유하는데 중인의 신분이 가만히 있다고 말하고 있다. 두 신분을 비교하면서 유배자가 신분이 낮다는 밝히고 있으며 그러한 대우가 당연하다고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다.

가난한 집 지내치고 넉넉한 집 몇 집이고  
 사립문을 드자할가 마당에를 썼자하랴  
 철없는 어린 아해 소 같은 젊은 계집  
 손가락질 가라치며 귀양다리 온다하니  
 어와 고이하다 다리지칭 고이하다  
 ……  
 두 손길 느려치면 다리에 가까오니  
 손과 다리 머다 한들 그 사이 얼마치리  
 한 층을 조금 높혀 손이라나 하여 주렴  
 부끄럼이 먼저 나니 동냥 말이 나오더냐

집주인이 아닌 추자민의 유배자에 대한 태도가 나타나는 대목이다. 이 후에 다리 타령으로 이어지면서 자신의 처지를 회화하면서 나타낸다. 이 대목을 두고 본다면 유배자에 대한 경칭이나 우대는 찾을 수 없다. 유배자는 앞에서 살펴본 집주인의 편잔과 자신의 허기짐에 이기지 못하고 동냥을 나가게 된다. 비록 중인의 신분이지만 궁중에서 일하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이는 아주 비참한 지경이



다. 이미 유배자도 마음속으로 참담할 지경인데 ‘철없는 어린 아이’와 ‘소 같은 젊은 계집’이 유배자의 심정을 더욱 참담하게 만든다. 또한 ‘귀양다리’<sup>31)</sup>라고 일컫게 된다. 이는 추자섬의 주민들 또한 유배자에 대해서 외경함이 없음이 들어난다. 비록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단어이지만 이 단어 속에 유배자에 대한 주민의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귀양다리’ 지칭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주민들이 유배자를 가볍게 보고 있음이 나타난다. ‘손가락질 가라치며’ 일컫는 이 행위는 상대방을 아주 낮게 보는 태도일 것이다.

그 집사람 눈치 알고 보리 한 말 떠서주며  
 가져가오 불상하고 적객 동냥 예사오니  
 당면하여 받을 제는 마지못한 치사로다  
 그렇저렇 얻은 보리 들고 가기 어려우리  
 어느 노비 수운하리 아모려나 저 보리라  
 갓은 숙여 지려니와 홀 중치막 어찌할고

다리타령 다음으로 나오게 되는 대목이다. 유배객들의 동냥을 예사로운 일이니 그리 부담을 갖지 말라는 집주인의 말을 통해서 유배객들이 추자도에는 혼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동냥을 얻으려간 집주인은 가사에 여유가 있다. 보리 한 말을 가볍게 내줄 수 있는 정도의 집안에서 동냥을 하는 유배객을 집주인은 홀대하지는 않는다. 같은 추자도에서도 주민들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 유배객의 대우는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유배객이 갖는 모멸감은 잠깐의 환대로 달라지지 않는다. 동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유배객에게 집주인은 또 놀리게 된다.

머지 아닌 주인집을 천신만고 겨우오니  
 존전의 출입인가 한출침배 하는고야

3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권』, 지식산업사, 2005. p. 355. 조동일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리라는 말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을 이용해 능란한 입심을 부렸다. 다리와 손은 멀지 않으니 ‘손이러나 하여 주렴’이라고 한 말은 손이 손님을 뜻하기도 하는 데 착안해서 귀양다리를 귀양손님이라고 높여주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골계적인 측면에서 살펴볼만 하다.

저 주인 거동보소 코웃음 비웃으며  
양반도 할일 없네 동냥도 하시었고  
귀인도 속절 없네 등짐도 지시었고  
밥싼 노릇 하오시니 저녁 밥 많이 먹소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동냥도 한 번이지 빌긴들 매양하라  
평생에 처음이요 다시 못할 일이로다  
차라리 굶을진정 이 노릇은 못하리라

멀지 않은 주인집에 천신만고 끝에 겨우 왔는데 집주인은 또 유배객을 향해 농담을 하며 놀린다. 코웃음치고 비웃으며, 동냥을 하고 그 보리를 영성하게 등짐으로 지고 오는 유배객을 놀리면서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유배객은 마음이 뒤틀려서 밥도 먹기 싫고 동냥도 하기 싫다고 하고 있다. 집주인의 유배객에 대한 비난은 작품 전반에 걸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배객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북헌의 문집 속에 나타나는 유배 모습과 <속사미인곡> 속에 나타나는 유배지에 서의 삶은 <만언사>에서 바라본 유배자의 삶과 그 양상이 다르다. 전자 즉 양반의 경우에는 유배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주민들이 거처를 마련해주는 노역을 해주며 유배자에 대해서 관대한 편인데 반해 <만언사>에 나타나는 주민들의 태도는 다르다. 이 둘의 차이는 다름이 아니라 두 유배자의 신분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북헌과 북곡의 경우에는 양반 사대부의 가문인데 반해 <만언사>에 나타나는 유배자는 궁중의 별감직책인 중인 계층이기 때문이다. 같은 추자도의 유배생활임에도 두 계층의 유배생활은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 IV. 가사에 나타난 제주의 향토문화

<속사미인곡>과 <만언사>는 추자도를 배경으로 한 유배가사이다. 현재 행정적으로는 북제주군 추자면에 속하나 언어, 생활 풍습, 정서면에서 전라도에 너무나 가깝다. 제주도와는 집 모양이나 구조, 음식이 다르고 특히 말씨나 억양이 다르다. 여러면에서 추자도는 전라문화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sup>32)</sup> 그러나 추자는 본토와 제주를 오가는 길목의 섬으로서 제주와의 교류가 끊임없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과 제주와 추자가 본토와의 쉽게 왕래할 수 없는 격리성을 지녔다는 공통점에서 두 지역이 공통적인 요소를 보일 수 있다. 즉 제주에 비해서 작은 섬이지만 제주와 비슷한 섬문화를 형성했을 것이라는 점은 유추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부족한 부분은 비슷한 시기의 제주를 배경으로 하는 다른 작품들을 살펴봄으로써 당시의 제주 향토문화를 유추하는데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들을 비교하면서 제주의 향토문화를 찾아보려 한다.

### 1. 주거생활과 의복

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속사미인곡>에서는 유배자와 주민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주민들에 의해서 유배자의 집이 고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처음 유배자가 도착할 당시의 집은 보잘 것 없었다. 물론 폐가를 위리안치 유배자의 집으로 마련했을 수도 있으나 폐가도 집의 모양은 일반 백성들의 집과 같을 것이라 여겨진다.

風雨를 무릅쓰고 蝸室을 츠즈드니  
茅茨는 다 늘니고 竹窓의 無紙현대  
床床 屋漏는 只큰대 전혀 업다  
말만흔 좁은방의 蟣蟲도 만홀시고

32) 고행미, 「추자도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특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八尺 長身이 구버들고 구버나며  
다리를 서려누워 긴밤을 새와나니  
쥬등의 적신의복 어너 불의 물너오며

유배자가 도착해서 거주지로 선택된 집에 들어가서 첫날을 보내면서 쓴 감상이다. 유배자는 좁은 방에 거처하게 된다. 북곡은 한양에서 벼슬을 살다온 양반으로서 집안의 부는 어느 정도 축적되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유배지에서 자신이 거처해야하는 집은 좁으니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 규모가 더욱더 작아 보였을 것이다. 집의 규모를 더욱더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은 ‘八尺 長身이 구버들고 구버나며/ 다리를 서려누워 긴밤을 새워나니’이다. 집이 작다보니 몸을 굽어서 들고 가야 한다. 집의 상황도 좋지 않아서 집을 덮은 띠들도 다 날아가고 창문에 종이도 없다.

집의 규모 다음으로 유배자에게 다가오는 것은 蚤蠹이다. 집도 작는데다가 벌레까지 득실거린다. 물론 폐가를 이용했다면 말은 달라질 수 있겠으나 작품 말미에 나타나는 자신의 신세 한탄 속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이러한 어려움은 절실하게 표현되어 있다.

災蒸도 그지업고 卑濕도 滌甚하다  
蠅蚋蚊蠹은 백가지로 쏘지지고  
蛇蝎蜈蚣은 스벽의 縱橫하니

작품의 말미에 신세한탄과 더불어 나타나는 대목이다. 도착할 때의 집의 모습과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러한 모습은 <만언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집이라고 서불손가 기어들고 기어나며  
방 한 간에 주인들고 나그네는 잘 데 없네  
뛰자리 한 잎 주어 첩하게 거처하니

냉지에 누습하고 증생도 하도할사  
바남은 구렁배암 뽕남은 청진의라

-중략-

주인의 근력빌어 房半間 의지하니  
흙바람 발랐은들 조희맛 아올손가  
벽마다 틈이벌어 틈마다 버레로다  
구렁지네 섞여잇어 약간버레 저허하랴  
끓은버레 주어내고 작은버레 던져주네  
대를엮어 문을하고 현자리로 가리오니  
적은바람 가리온들 큰바람 어찌하리  
적무인 빈방안에 계발물어 던지드니  
새오잠 곱송고려 긴긴밤 새와날제  
우흐로 寒氣들고 아래로 冷氣올라  
일흠은 濇突이나 한테만도 못하고야

<만언사>의 유배자가 유배지에 도착해서 주인에게 갖은 수모를 겪으면서 지내는 집에 들어갔더니 마땅히 거처할 곳이 없다. 집의 규모도 작아서 역시 여기서도 곱어들고 곱어 나야한다. 집은 또한 방이 한 칸 있다. 방 한 칸의 허름한 집에서 유배자는 방에서도 머물지 못하고 대자리를 하나 얻어서 처마 밑에서 지낸다. 처마 밑의 모습을 보면 그 집의 환경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바다 마을이라 습기도 많으며 뱀도 많다. 계절이 지나 겨울이 되니 주인도 어쩔 수 없이 방 반 칸을 내주게 된다. 그러나 이 방은 누추하다. 흙벽을 발랐으나 그 벽이 갈라져서 틈마다 지내며 벌레들이 득실거린다. 심지어는 잠자는데 게가 기어와서 발을 무는 정도이다. 이는 <속사미인곡>의 집과 양상이 비슷해서 이 시기의 집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방문도 대를 엮어 만들어 현 자리로 막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작은 바람은 막을 수 있으나 큰 바람은 피할 수 없다. 뽕감이 넉넉지 않은 집에서는 난방이 어려웠을 것이다. 유배자도 위로 한기가 들고 아래로 냉기가 들어 온돌방에 누웠으나 오히려 한테보다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200년 전의 충암의 문집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땅에는 벌레들이 많은데 파리와 모기가 더욱 심하다. 지네와 개미와 지렁이 등 모든 굼실거리는 물건들이 모두 겨울을 나도 죽지 않으니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sup>33)</sup>

제주의 상황은 오현 중의 한분인 冲庵 金淨의 <제주풍토록>에도 나타난다. 그의 연보에 의하면 1520년에 제주에 유배된다. <풍토록>이 지어진 시기는 유배된 이듬해에 이다. 비록 16세기 초반의 기록이나 200여년 뒤에 지어진 가사와 비교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세기 초의 추자도 일반 백성은 주거 문화가 좋지 않았다. 좁고 낮은 집에 거처하며 땅에 습기와 냉기가 가득하고 벽마다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다. 또한 겨울철에 문도 제대로 닫지 못해서 한기를 막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에 나타난 집의 양식이 그 시기의 대표적인 집의 모습이라 말 할 수는 없지만 평민들이 사는 집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주거생활이 좋지 못했던 만큼 의복도 좋지는 않다. 의복을 화려하게 입는 것을 바라지는 못해도 철에 알맞는 옷을 입어야 지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언사>의 유배자는 이러한 의복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어려움을 가사 속에 담고 있다.

의복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난다  
남방염천 찌는날에 빠지 못한 누비바지  
땀이배고 때가올라 굴뚝막은 덕석인가  
덥고검기 다버리고 내암새를 어이하리

이 단란의 내용을 보고 무턱대고 일반 서민들이 하나의 옷으로 사계절을 입는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비록 파렴치죄로 유배온 죄인이고 자신의 집 식량을 축내는 식객이라 해도 4계절을 같은 옷을 입는 화자를 그냥 놔둔다는 것은 그

33) 金淨, 「冲庵集」, 『한국문집총간 23』, 민족문화추진회, 1996.

만큼 서민들의 생활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다. 생활의 여유가 없다면 유배자가 아무리 불쌍한 처지라도 그것을 돌봐줄 여력이 없다. 이는 곧 그 시기의 주민들이 의생활도 넉넉하게 누리지 못하고 근근이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유배자의 괴로움은 다음으로 더욱 처절하게 나타난다

이렇저렇 허튼 근심 다 후리쳐 던져두고  
의복 그려 하는 설음 목전 설음 난감하다  
한 벌 의복 입은 후에 춘하추동 다 진하니  
아마도 이런 옷은 내 옷밖에 또 없으리  
여름에 하 더울 제 겨울을 바랐더니  
겨울이 하 치우니 도로 여름 생각하네

앞에서는 더운 여름을 괴로워하는 유배자의 모습이 나왔으나 여기에서는 자신의 의복을 전체적으로 한탄하고 있다. 허튼 근심들은 다 제쳐두고 목전에 닥친 의복 걱정이 가장 난감하다. 한 벌의 옷으로 춘하추동을 다 지내는 유배자의 괴로움이 그대로 표현되어 나타났다. 누비옷을 입고 여름에 더울 때는 겨울을 기다렸으나 막상 겨울이 되니 다시 여름이 생각난다. 앞에서도 언급했으나 유배자의 이런 처지는 그 주민의 생활을 반영한다. 그 주민들 또한 넉넉지 않기 때문에 유배자의 이런 처지를 방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쓰오신 망건인가 입으신 철갑인가  
사시에 하동없이 춘추만 되었고저  
발꿈치 드러나니 그는 죽히 견디어도  
바지 밑 터졌으니 이 아니 민망한가  
내 손수 깎자하니 기울 것이 바이 없네  
애꿎은 실이로다 이리 얽고 저리 얽고  
고기 그물 걸어맨 듯 꿩의 눈 찍어맨 듯  
침재도 그지없고 수품도 사치롭다

의복이 넉넉하지 못해서 유배자는 춘추만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유배자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또한 밑이 터진 옷을 기우려 해도 도구가 없어서 깎지 못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를 일반적인 내용으로 확대 시킬 수는 없으나 추자도민의 생활이 넉넉하지 못해서 바늘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침구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추자도민의 일부는 옷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허름한 채로 다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제주도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南槎錄』을 살펴보자.

섬사람들은 몹시 가난하고 옷이 없는 자가 많다. 망석을 뚫어 만든 도롱이를 입고 겨울 추위를 막는다. 대기 그 땅이 북쪽 본토에 비해서 대단히 따뜻하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죄를 지고 들어가서 옷 없이 벌거벗은 자도 역시 풍속에 따라 추위를 견디는 것인데 이는 궁핍 하여 어쩔 수 없는 것이다.<sup>34)</sup>

위의 기록으로 보아 제주도의 상황도 추자도와 별반 차이가 없다. 물론 기록이 1세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으나 변화의 속도가 느린 시대상으로 봤을 때 1세기 후에도 별반 다름이 없었을 것이다. 이는 다음에 살펴볼 김춘택의 시에서 나타난다.

靑木綿裙短布禪	색바랜 찢어진 치마를 몸에 두르고
癸田閻氏淚潛吞	계전의 아낙네들은 눈물로 사는구나

金春澤의 “濟州所見”이라는 시의 일부이다. 뒤에 다시 인용할 것이므로 그 때 다시 다루게 될 것이다. 여기에 나타난 아낙네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 의생활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색바랜 찢어진 치마’를 몸에 두르고 다녀야 하는 당시의 백

34)金禧東 譯, 「南槎錄」, 영가문화사, 1992. “島人貧賤無衣者多穿網席蓑衣以御冬寒. 盖其地比北土甚溫暖故自京城被罪入去而無衣赤脫者赤隨俗耐寒此乃迫不得已也”

『남사록』은 오현 중에 한분인 淸陰 金尙憲이 선조 34년(1601)년 7월에 발생한 길운절의 반란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8월 1일에 입도하여 이듬해 2월까지 제주를 순시하면서 보고 들은 내용을 일기형식으로 기록한 책이다. 여기에는 제주도의 풍토, 물산, 형승, 민정, 풍속, 고적, 성지, 주요한 건물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성들의 모습을 北軒은 그리고 있다. 하나의 옷으로 너무 오래 입다보니 색이 바랬으며 찢어진 옷도 그 도구를 갖추지 못해 제대로 기울 수도 없는 아녀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경우 기근에 시달려서 의생활에 소홀히 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린 내용일 수도 있으나 일단 의생활을 제대로 영유하지 못한 제주민의 삶을 그린 것으로 생각하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자도민의 주거생활과 의복생활은 넉넉하지가 않다. 일단 집의 구조는 좁고 출입하기 불편할 정도로 낮다. 전체적으로 방의 구조는 좁으며 방벽 전체적으로 흙벽을 발랐다. 그러나 이러한 흙벽도 갈라지는 곳이 많아서 그 사이사이에 벌레들이 많이 서식함을 볼 수 있다. <만언사>에서 나오는 집의 경우는 집의 구조가 방 한 칸밖에 없으며 문도 제대로 달려있지 않았다. 바람을 대충 막기는 했으나 큰 바람은 막기 어렵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한 집 주변에는 바다의 영향으로 습기가 많고 축축하다. 주거지의 모습이 이러하여 주민들의 삶이 넉넉하지 않다. 또한 의복도 넉넉하지 않아 <만언사>의 작자인 경우에는 누더기 옷 한 벌로 일년을 지내고 있음이 나타난다.

제주도의 경우도 추자도와 별반 차이가 없다. 1세기 앞선 『남사록』의 기록이나, 비슷한 시기의 김춘택의 시가에서 나타나는 제주민의 의복 또한 좋지 않아 찢어지거나 빗바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나타난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은 뒤에 살펴볼 식생활과 연관하여 제주민이 기근과 함께 질병을 앓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제주에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는 것은 주거생활과 의생활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 2. 식생활

주거 문화와 함께 식생활도 그리 넉넉하지 않다. <속사미인곡>에서 처음 도착해서 양식이 없어 자신의 짐꾸러미에서 겨우 쌀을 찾아 죽을 만들어 먹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언사>에 나타난 유배자는 이러한 양식도 구하지 못해 양식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북곡의 경우에도 섬주민의 홀대는 받지 않으나 양

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나타난다.

嚴冬이 깊히지고 육지는 못통흐니  
양식도 꺾절거든 반손이아 의논흐며  
염장을 못먹거든 어육이아 브랄소나  
도중 수십리의 일년초 稀罕하다  
조석밥 못닉일 제 방 덩기 싱각홀가  
정조 대명일의 소국의 썩을 썬어  
갯물의 저린 비츠 상찬으로 올라시니  
어와 이 경상은 生來의 처엄 보내

추운 겨울이 깊어가면서 본토와의 왕래도 끊어지게 되어 양식을 구하기가 힘들어 진다. 양식이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 반찬은 논할 바가 못 된다. 양식이 부족하다 보니 먹을 것을 찾아 주변을 둘러보게 되는데 섬에는 풀마저 드물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식량이 부족해서 본토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연명하는 내용을 2장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추자도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토와의 왕래 속에서 식량을 구하는 추자도의 실정이 나타난다.

식생활의 어려움은 <만언사>에도 그대로 들어나고 있다.

앞뒤에 田畝업고 물속으로 生涯하여  
앞언덕 고기낚아 옷넉에 장사가니  
삼망언어 보리섬이 믿을 것도 아니로세  
身兼妻子 세식구의 糊口하기 어렵거든  
糧食업는 나그네는 무엇먹고 살려는고

유배자가 추자도에 도착해서 이집 저집 배회하다 관원이 떠맡기고 간 집의 주인이 말을 하는 대목이다. 섬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자신의 집에는 앞뒤에 전답이 없고 물에서 생애를 영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고기를 잡아서 보리로 바꾸어 먹어야 하는데 그 또한 항상 있는 일이 아니라서 믿을 것이 못된다. 이러한 처지는

곧 세 식구가 호구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된다. 그러한 처지에 양식도 마련하지 못하는 나그네는 무슨 일이나며 푸념을 늘어놓고 있다. 집주인의 이러한 어려운 처지는 유배자에게 바로 식생활의 어려움을 안겨준다.

눈물로 밤을새와 아침에 조반드니  
덜뜨린 보리밥에 무자평이 한종자라  
한술을 떠서보고 큰덩이 내어놓고  
그도저도 아조업서 굴물적이 간간이라  
여름날 긴긴날에 배고파 어려워라

유배은 심정에 눈물로 밤을 새우고 아침상을 받았는데 ‘덜뜨린 보리밥에 무자평이 한종자’가 밥상에 오르고 있다. 대전별감이었던 유배자가 이러한 밥상을 받아 먹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하찮은 밥상도 아주 없어서 굶는 경우가 간간히 있었다. 해가긴 여름에는 이러한 고통이 배로 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유배자가 겪는 식생활의 어려움은 유배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당시의 민간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은 겪을 수밖에 없다.

이는 추자도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제주에서도 식량난은 긴박한 문제이다. 이는 북현의 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濟州所見

靑木綿裙短布禪	색바랜 찢어진 치마를 몸에 두르고
癸田閼氏淚潛吞	계전의 아낙네들은 눈물로 사는구나
朝朝約伴攬筐公	이른 아침 대바구니를 들고
採得畦頭首蓳根	야산에 가서 풀뿌리를 캐며 연명하네

위의 시는 제주의 여인들이 가난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다. 위정자가 아닌 그는 위정자보다 제주민의 삶을 보다 가까이서 볼 수 있다. 제주민들

이 양식이 없어서 이른 아침부터 대바구니를 들고 산에 들어가 풀뿌리를 캐는 모습이 나타난다. 추자도뿐만 아니라 제주에서도 역시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기근에 못 이겨 풀뿌리를 캐면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음이 나타난다. 제주민의 기근에 대해서는 유배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뚜렷하게 비치고 있다.

비슷한 시대의 石北 申光洙의 시작 속에서도 제주민의 삶은 한 가닥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난다. 그중 제주의 풍토에 관한 시는 제주민의 생활상을 보여주기 충분하다.

憫荒

石田頻歲海民饑	돌밭인데 흉년이 잦아 바다백성 주리니
滿目淒涼物色悲	보이는 것 모두다 처량하고 슬프구나
從古漁鹽無市國	예부터 고기 잡고 소금 구어도 저자는 없는 나라
如今風雨絕船時	요즘은 비바람 불어 육지의 배도 끊겼으니
長毛鎮卒偷廚肉	늙은 관아의 졸개는 부엌 고기를 훔쳐가고
黃面蕃姑剝樹皮	누렇게 부황난 변방의 아낙네는 나무껍질을 벗긴다
我亦王臣來此地	나 또한 왕의 심부름으로 이 곳에 와서
每堂朝夕自停匙	아침저녁 밥상을 대하면 절로 수저를 떨구네 <sup>35)</sup>

제주의 토양이 좋지 않아 흉년이 잦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토에서 식량을 조달해서 부족한 식량을 채우며 기근을 면하곤 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도 한계가 있어서 항상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다. 결국 제주민의 기근은 이어지게 되고 그 기근을 이기기 위해서 나무껍질을 벗기고 풀을 캐먹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 이 시에서도 본토와의 왕래가 끊어져서 양식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제주에서 생산되는 양식의 양이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생산된 양식의 양이 적다 보니 일반 백

35) 吳文福, 앞의 책, p. 208. 石北 申光洙는 1764년(영조 40) 金吾郎으로 제주에 왔다가 표류되어 40일간 머물렀다. 짧은 기간을 머물면서 『耽羅錄』을 지었다. 탐라록에는 한시 60여수가 실려 있고, 제주의 풍토산천.鳥獸.항해.상황 등을 배경으로 지었다.

성뿐만 아니라 관아의 아전들까지 관청 부엌에 있는 고기를 훔쳐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관아의 아전들도 힘들다는 것은 관고도 이미 바닥난 상태일 것이다. 이런 사정이어서 제주민의 생활은 극도로 궁핍하다. 나무껍질을 벗겨 먹으며 삶을 근근이 이어가지만 제주의 아낙의 얼굴은 이미 누렇게 떠있다.

이런 양상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가사에서 나타난다. 제주에 목사로 왔던 정언유의 <耽羅別曲>에 이러한 제주민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耽羅別曲>의 작자는 鄭彥儒(1687~1764), 字는 林宗, 號는 迂軒, 東萊人이다. 온양군수와 진주목사를 지내고, 세자시강원 필선을 하였으며, 영조 24년에녕해부사를 역임한 다음 영조 25년(1749) 세 63으로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2년동안 재직한 뒤 형조·호조를 역임한 뒤 영조 40년(1764, 甲申) 78세로 별세하였다.<sup>36)</sup>

<탐라별곡>은 120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0행까지의 서사에서는 제주목사로 부임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다음 21-112행의 본사에서는 순력길에 나서 백성들의 생활상을 살펴보는 모습이 나타나는 데, 이는 당시 제주도의 생활상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된다. 이후 본사의 내용은 목민관으로서의 훈민하는 내용, 그리고 임지 제주의 경승을 돌아본 감회와 연군의 정을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 113-120행은 술을 마시며 시름을 덜고자 하는 작자의 마음을 서술하고 있다.<sup>37)</sup>

탐라 별곡을 지은 정언유의 행적은 영조실록에도 나타난다. 그는 영조 25년 조정에 요청해 쌀 3천석을 제주에 공급하게 하였다<sup>38)</sup>. 이 시기의 제주의 상황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 했지만 제주는 곡물이 풍부하지 않아 종종 본토로부터 쌀을 이송해서 근근히 기근을 극복하곤 했다. 이듬해인 영조 26년에는 전국에 여역(癘疫: 유행성 열병)이 돌아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는 가운데 제주에도 882명이 병으로 사망했다.<sup>39)</sup> 이러한 제주의 상황에서 정언유는 제주민의 어려움

36) 김익수, 『남유록달고사탐라별곡훈민편』, 제주문화원, 1999, p. 65

37) 윤치부, 「<탐라별곡>의 구성과 표현」, 『제주교육대학교 논문집24』, 제주교육대학교, 1995

38) 『英祖實錄』, 영조25년 12월 30일 “甲辰/命以賑穀三千石浮海, 救濟州民. 從牧使鄭彥儒之請也.” “진곡(賑穀) 3천 석을 바다에 띄워 제주(濟州)의 백성을 구제하도록 명하였는데, 목사(牧使) 정언유(鄭彥儒)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을 가사의 내용 속에 담고 있다.

어여쁠사 우리 百姓	무삼 일로 偏苦하며
衣食이 艱窘하니	興味가 있을 손가
八陽足踏 겨우 하여	薄田을 耕作하니
짧은 호미 작은 보섭	辛苦히 매 가꾸어
五六月 盡力하며	西成을 바라더니
造物이 忌劇하고	天時도 그릇되어
惡風과 甚한 霖雨	해해마다 孔劇하니
田畝를 돌아보면	兵馬로 짓밟은 듯
各穀을 둘러보면	鐵鞭으로 짓찧은 듯
남은 이삭 주어내니	빈 꺼플 뿐이로다
무엇으로 公債 갚고	어찌구려 살아갈꼬
거리 거리 모든 飢民	駕輶 잡고 일는 말이
서러울손 우리 性命	나라에 달렸으니
流民圖 옮겨다가	人君 계신데 알리고저
가죽 옷 풀 戰笠이	이 무슨 衣冠이고
메밀 밥 橡實粥이	그 무슨 飮食이고
歲歲에 國恩 입어	羅鋪移轉 虛實하니
請粟도 낮이 없고	生計도 茫然하다

-후략- 40)

제주의 땅은 척박하여 박전이다. 또한 농기구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짧은 호미와 작은 보섭으로 힘들게 가꾼다. 하늘이 시기하고 때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39) 『英祖實錄』, 영조26년 9월 30일 “是月, 癘疫死亡, 京畿三千三百八十二名, 關東五百七十二名, 湖西六千二百六十六名, 湖南一萬六千七百五十二名, 嶺南一萬七百三十九名, 海西一萬一千三百七十一名, 關西一千八百五十三名, 北關一萬二千一百四十一名, 江都二千三百九十一名, 松京一千五百二十名, 濟州八百八十二名.” “여역으로 사망한 자는, 경기가 3천 3백 82명, 관동이 5백 72명, 호서가 6천 2백 66명, 호남이 1만 6천 7백 52명, 영남이 1만 7백 39명, 해서가 1만 1천 3백 71명, 관서가 1천 8백 53명, 북관이 1만 2천 1백 41명, 강도가 2천 3백 91명, 송경이 1천 5백 20명, 제주가 8백 82명이었다.”

40) 김익수, 앞의 책, pp. 54~55.

심한 바람과 장마가 해마다 지독해 수확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밭을 보면 병마에 짓밟힌 듯하고 곡식을 보면 첩편으로 찢 듯해서 모양이 고르지 못하고, 남은 이삭도 여물이 제대로 들지 않아 빈 꺼풀뿐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공채도 갖지 못하고 제주민들은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목사의 가교를 잡고 한탄을 늘어놓아도 해마다 은혜를 입는 본토에 다시 곡식을 요청하기도 낮이 없고, 생계도 막막한 상황에 봉착했다. 이들이 먹는 음식은 메밀밥이며 상수리 열매로 만든 죽 같은 것들이다.

제주도나 추자도의 생활에서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것은 역시 식생활이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토질이 좋지 못하여 흉년이 자주 들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추자도도 별 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흉년으로 제주민들은 기근에 시달리게 된다. 중앙에서는 기근의 대책으로 호남이나 경기의 곡식을 제주로 실어 날리거나 제주의 공물을 연기해주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러한 대책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결국 제주민의 생활은 극도로 궁핍하게 되었으며 추자도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유배자를 거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식량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 같다. <만언사>에서 유배자가 동양을 해오는 부분에서 나타난 주인의 행동에서도 식량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궁핍 속에서 제주민들은 나무껍질을 구하거나 풀들을 구하는데서 식량의 부족을 채우고 있음이 가사나 비슷한 시기의 시들 속에 나타나 있다. 이로 보건데 이시기의 제주도는 의식주의 모든 면에서 궁핍하고 부족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추자도의 경우에도 비슷했으며, 이는 작품 속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 3. 풍속

유배자는 추자도민에 대한 관찰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가 받은 홀대로 객관적인 관찰이라 할 수 없는 형태로 관찰의 모습을 형상화 하고 있다. 이러한 관찰은 그 시기의 추자도의 모습이 어느 정도 반영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버리고 객관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유배자의 관찰을 살펴보자.

인륜이 없었으니 부자의 싸움이요  
남녀를 불문하니 계집의 등짐이라  
방언이 괴이하니 존객인들 아올소나  
다만지 아는 것이 손굽이 주먹험에  
두 다섯 홀 다섯 못 다섯 꺾기로다  
포학과 탐욕이 예의엄치 되었음에  
분전승합으로 효제충신 삼아있고  
한들 공덕으로 지효로 알았으니  
혼정신성은 보리 담은 대독이요  
출필꼭반필면은 돈 모으는 병어리라  
왕화가 불급하니 건용의 행사로다

유배자가 추자도의 풍속에 대한 관찰을 담고 있는 대목이다. 위의 문장의 모습으로 본다면 추자도민들은 더 이상 논할 바 없는 오랑캐의 무리일 뿐이다. 그러나 유배자의 처지를 생각하고 유배자가 집주인이나 주민들에게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이러한 표현이 객관적인 관찰로 보이지는 않는다. 유배자의 감정이 충분히 실린 내용일 가능성이 많다.

제주도와 추자도의 풍속이 같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작품에 나타난 내용과 다른 기록들을 살펴보면 대조하는 것도 제주도의 풍속을 알아보는데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비슷한 시기의 다른 문인이 제주에 와서 남긴 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風土

久我南中客      내가 오래도록 남쪽의 손이 되어 있어  
頗於土俗詳      자못 지방 풍속을 자세히 알았네



方言多細急	방언은 조금 가늘고 다급하며
民姓半高良	백성들의 성씨는 고씨 양씨가 태반일세
只見蜂房石	벌집 같은 돌은 볼 수 있으나
虛聞馬尾裳	말꼬리 치마는 헛소문이었네
北人如問事	본토 사람들이 만약 이 일을 묻는다면
歸作話頭長	돌아가서 말(言)꼬리가 길어지겠네 <sup>41)</sup>

석북 신광수의 위의 시는 제주의 풍토에 관해서 쓴 것이다. 제주의 언어가 빠르고, 제주민의 성씨가 고씨와 양씨가 많으며, 화산암인 현무암이 많은 것을 특징으로 그리고 있다. 또한 본토에서 보는 제주 인식의 일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말총에 관한 것을 알 수 있다. 제주에는 말이 많아 말총으로 치마를 입는다는 이야기가 본토에서 이야기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석북이 눈으로 확인한 실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나타난다. 석북의 시에서도 제주의 방언 역시 가늘고 다급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만언사>의 유배자와 같은 생각이다. 제주 방언에 대한 다른 기록들도 살펴보자.

귀양살이를 한 申長齡은 역관이었는데 일찍이 말하기를 “이 섬의 말이 중국말과 아주 흡사하여 소나 말을 몰 때의 소리는 더욱 분간하지 못하겠다. …… 대개 기후가 중국과 차이가 없어서 그러한 것인지, 일찍이 원나라가 점거하여 관리를 여기에 둔 때문에 중국말과 서로 섞여서 그런 것인지”하였다. 내가 들은 바는 지지에 이르지 못하나 소위 사투리란 다만 높고 가늘어 알아듣지 못하여 그럴 것이다. 숲을 꽃(花)이라 하고 메뿌리를 오름(語老音)이라고 하는 등의 말은 앞서 얘기했다.<sup>42)</sup>

崔溥의 언급대로 ‘사투리란 다만 높고 가늘어 알아듣지 못하여’ 일어나는 현상

41) 吳文福, 『탐라시선』, 제주문화, 2001, p. 33.

42) 金禧東 譯, 「南槎錄」, 영가문화사, 1992. “謫人申長齡乃譯官也. 嘗曰此島語音酷似中華如驅牛馬之聲尤不可分辨云云. 蓋風氣與華不隔而然耶. 曾爲元朝所據置官於此故與華相雜而然耶. 余之所聞不至於地誌所謂俚語者但高細不可曉則然矣以藪爲花岳爲語老音等語猶前所云.” 이 인용문은 남사록에 실려 있으나 원문은 최부의 <漂海錄>에서 발췌한 것이다. <표해록>은 崔溥(1454-1504)가 제주도 敬差官으로 있던 중 부친상을 당해 고향인 나주로 향하다가 풍랑으로 표류하여 중국의 북경과 요동을 거쳐 귀국한 후 그간의 상황을 일기체로 기술한 책.

일 수 있다. 제주나 추자의 방언이 일치하지 않음은 현대의 언어적 차이에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최부의 지적대로 제주나 추자도의 방언은 외지인이 받아들이기에는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이러한 점은 외지인에게는 거부감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거부감이 작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연사>에 나타나는 ‘방언이 괴이하니 존객인들 아올소냐’의 부분 역시 추자도민에게 당한 여러 가지 한이 가사 속에 배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방언이 괴이한 것과 자신이 존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유배자는 자신이 추자민보다 존객이라 여기고 있지만 추자민은 오히려 ‘과렴치범’인 유배자를 홀대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만연사>의 인용문에서 유배자는 추자도민의 여인들이 등짐을 지는 것을 괴이하게 여기고 있으며 추자도민이 인륜이 없어 부자지간에 싸운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역시 유배자가 추자도의 실정을 알지 못함에서 나오는 표현일 것이다. 제주와 추자도가 비록 같은 지역은 아니지만 섬이라는 특성은 삶의 양상을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다. 이런 조건은 제주에 나타나는 삶을 통해서 추자도의 실정도 살펴볼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사면이 바다인 조건은 추자도나 제주도가 같기 때문에 삶의 양상이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같다. 이는 바다에서 남자를 많이 잃게 되어 아녀자가 농사를 짓거나 집안일을 돌보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제주도와 비슷한 조건인 추자도가 같은 양상일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준다. 석복의 시를 더 살펴보겠다.

潛女歌

耽羅女兒能善泅  
 十歲已學前溪游  
 土俗婚姻重潛女  
 父母誇無衣食憂  
 我是北人聞不信  
 奉使今日南海遊

탐라의 여자들은 잠수질을 잘하여  
 열 살 때부터 앞내에서 헤엄치기를 배운다  
 이 지방 풍속은 혼인에도 잠수를 중히 여기며  
 부모는 의식걱정 없다고 자랑을 한다는 말을  
 나는 북쪽 사람이라 듣고 믿지 않았더니  
 이제 왕사가 되어 남쪽 땅에 와서 직접보니

城東二月風日暄  
家家兒女出水頭  
一鍬一筭一瓠子  
赤身小袴何曾羞  
直下不疑深青水  
紛紛風葉空中投

.....

世間極險無如水  
能者深入近百尺  
往往又遭飢蛟食  
自從均役罷日供  
官吏雖云與錢覓  
八道進奉走京師  
一日幾馱生乾鰓  
金玉達官庖  
綺羅公子席  
豈知辛苦所從來  
.....

따뜻한 이월 날씨 성동쪽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여인들이 물가로 나간다  
비창 하나 망사리 하나 테왁 하나  
소중이에 알몸을 부끄러이 여기지 않고  
깊고 푸른 물로 의심치 않고 바로 내려가  
날리는 낙엽처럼 공중에 몸을 던지니

세상에서 가장 험난함은 물과 같은 곳이 없는데  
능숙한 이는 백척 가까이 깊이 들어갔다  
왕왕 주린 교룡에게 잡혀 먹히기도 한다는데  
균역법에 따라 날마다 관에 바치는 일은 없고  
관리들은 비록 돈을 주고 사들인다 말하지만  
팔도에서 짐봉하여 서울로 올려보내는 것이  
생 전복 말린 전복 하루에도 몇 바리인가  
금옥 같은 높은 관리의 푸주간  
기라성 같은 귀한 이들이 앉은 자리에서  
어찌 알리요 이 전복이 어느 곳에서 어떠한 괴로움을 겪어  
왔는지를<sup>43)</sup>

위의 시는 잠녀가의 일부이다. 이 시에서는 제주여인들의 고된 삶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균역법에 따른 징수와 그 외에도 관리들이 착복하여 징수하는 물품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의 여인들은 잠수질을 잘하여 10살 때부터 물질하는 것을 배운다. 또한 혼인을 함에도 잠녀를 중히 여겼고, 부모의 봉양도 남성이 아닌 여성들의 물질을 통해서 많은 부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석복은 제주의 여인들이 제대로 옷을 갖추어 입지 못하고 물질을 하는 모습을 보며 놀라워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의 여인들은 태연히 웃으면서 물질을 하는 모습이 대조적이다. 웃으면서 물질을 하고 있으나 2월의 날씨는 그리 따뜻하지 않은 것이다. 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아직 물에 들어가기에 적당하지 않은 시기에 생업을 위해 물질을 하는 여인들의 모습은 자못 가련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삶의 의지

43) 吳文福, 앞의 책, pp. 45~48

가 강한 제주의 여인들은 본토의 여인과 달리 등짐을 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러한 행태는 제주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어업이 주업이 될 수밖에 없는 추자도에서도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만언사>의 유배자는 외지인으로 추자도의 실정을 알지 못하고 추주민의 삶의 모습을 비웃고 있다. 또한 부모를 섬기지 못해 부모 자식간의 싸움을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석복의 눈에는 오히려 여성들도 부모의 공양을 위해 바다에서 물질을 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그러나 제주민이 부모의 봉양을 반드시 잘했다고는 할 수 없다. 제주의 상황을 더 살펴보자.

물종으로 말할 것 같으면 1년에 바치는 말이 4~5백 필이고, 각 복(鰓)이 9천여 척, 오적어(烏賊魚)가 7백여 척, 산과(酸果)가 3만8천여 개, 마안(馬鞍)이 4~5십 부, 녹피(鹿皮)가 5~6십 영, 장피(獐皮)가 5십 영, 녹설(鹿舌)이 5~6십 개, 녹포(鹿脯)가 2백여 조, 각종 약재가 4백 7십여 근, 마의제연(馬衣諸緣)이 6백 8십여 부, 기타 표고(標高), 비자(櫃子), 백납(白蠟), 산유자(山柚子) 이년목(二年木), 궁대(弓袋), 통개(筒筒), 나전(螺鈿), 포갑(鮑甲), 총결지(聰結只), 양대모자(涼臺帽子) 및 소성(梳省), 삼장(三帳) 등등 사소한 잡물들이 모두 공헌에 관계되니 어찌 감히 일호인들 공노라는 말을 내세우겠습니까마는 인구 9천 호와 전지 3천 결로서 이러한 부역을 감내하여야 하니 도민의 약한 힘으로 이 또한 지탱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 한 사람이 늘 10역을 겸해 남여가 각기 신공(身貢)을 두게 됨으로 말미암아 문무 출신을 막론하고 모두 인구를 초출(抄出)할 때 1명당 5되 식을 축년(逐年)으로 매기니 태어날 때의 머리털이 채 마르지도 않아서 바로 역이 있게 됩니다. …… 자갈밭에서 거두는 곡식이란 아이들의 장난과도 같고 염분(鹽盆)과 어망은 애당초 범식도 알지 못한 실정인데 관에서는 백가지를 내는 역이 있습니다. 여가도 없으니 이러하고서 능히 살길이 있으리라 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sup>44)</sup>

44) 李衡祥, 「瓶窩集」, 『韓國文集叢刊164』, 1996 “若以物種言之。則一年內貢馬四五百匹。各鰓九千餘貼。烏賊魚七百餘貼。酸果三萬八千餘箇。馬鞍四五十部。鹿皮五六十領。獐皮五十領。鹿舌五六十箇。鹿尾五六十箇。鹿脯二百餘條。各種藥材四百七十餘斤。馬衣諸緣六百八十餘部。其他禁古櫃子白蠟山柚子二年木, 弓袋, 筒筒, 螺鈿, 鮑甲, 聰結只, 涼臺帽子及梳省, 衫帳小小雜物。皆係貢獻。何敢一毫言勞。而九千之戶。三千之結。酬應此役。則島民弱力。此亦難支。…… 一人常兼十役。男女各有身貢乙仍于。毋論文武出身。皆以人口抄出。每名五升式。逐年督捧。生髮未燥。輒有所役。…… 而石角耕穫。有同兒戲。鹽盆魚網。初不知法。官有百出之役。民無數日之暇。若是而能有生道者。未之有也。”  
해독은 申裕俊 編, 『李衡祥 濟州詩文選』, 탐라목석원 출판부, 1999, pp. 137~139에서 발췌 했다.

위의 글은 이형상이 올리는 장의 일부이다. 李衡祥의 자는 仲玉이고 호는 瓶窩이다. 1703년 제주목사로 부임하여 제주의 陋俗을 일체 개혁하여 儒俗으로 바꾸게 하였다. 후에 유배인과의 일에 연루되어 파직을 당하고 제주를 떠나게 됐으나 도민들은 4곳에 비를 세우고 그의 덕을 기리며 칭송하였다. 이형상의 장의 내용으로 보건대, 제주의 공납은 폐단이 많았다. 공물의 내역은 해산물과 소와 말 또는 그의 부산물, 그 외에 노루 사슴 등의 동물의 부산물을 주로 바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가 작은 제주민이 그 공물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았다. 그 어려움이 극심한 나머지 태어나자마자 공납을 매기는 정도로 표현되고 있다. 그의 상소에 의하면 그 어려움은 점입가경이다.

사시를 막론하고 번을 나누어 수직을 드는데 죽은 말 가운데 가죽에 점이 나타난 것은 거들 책임이 없지마는 3백여 리의 초목 중에서 더러는 때가 지나 썩은 것도 있고 더러는 짐승이 뜯어 먹은 것도 있고 더러는 가죽만 남기고 표적이 없는 것도 있는데 모두를 유실한 것으로 포함시켜 책정하니 한 사람이 1년의 소징(所徵)은 때로 10여의 말에 이릅니다. 이는 다른 도의 목장에는 없는 역이며 맨손으로 백성으로서는 마련할 길이 없어 마침내는 부모와 처자까지 팔고 자신의 몸을 잡히고 동생을 파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됩니다. …… 3읍에 명해 그 내용을 뽑아 보고토록 하였더니 부모를 판 자가 5명, 처자를 판 자가 8명, 자신의 몸을 잡힌 자가 19명, 동생을 판자가 26명 도합 58명 이었습니다. 당당한 예의의 나라로써 백성의 풍속이 여기에까지 이르렀으니 어찌 천만 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sup>45)</sup>

방목하는 말이 죽게 되면 그 책임은 수직하던 백성에게 돌아갔다. 비록 그의 잘못이 아니어도 그 책임은 피할 수 없다. 그로 인해 백성들은 부모를 팔고, 처자를 팔고, 자신의 몸을 잡히고, 동생을 팔아야 하는 비인륜적인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백성의 허물이 아니라 잘못된 공납의 체제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이형상 스스로도 이러한 폐단으로 풍속이 어지럽게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

45) 李衡祥, 앞의 책. “毋論四時. 分番守直. 斃馬中皮張現點者. 雖不責徵. 三百餘里草樹中. 或有過時腐傷者. 或有禽獸啄食者. 或有皮存而標無者. 則并與遺失者而責立. 一人之一年所徵. 或至十餘馬. 此是他道牧場所無之役. 而亦立之民. 無以辦出. 終至於賣父母鬻妻子雇當身賣同生之境. 世安有如此風俗乎. 無妻子則賣父母. 無同生則雇當身. 前賣未贖. …… 分付三邑. 使之抄報. 則賣父母五名. 鬻妻子八名. 雇當身十九名. 賣同生二十六名. 都合爲五十八名. 以堂堂禮義之邦. 民俗至此. 豈非萬萬可羞者乎.”

기고 있다.

이에 관한 기사는 속중실록에서도 볼 수 있다

이보다 앞서 제주 수신(濟州守臣)이 장계(狀啓)를 올려 아뢰기를,

“본도(本島)의 세 고을은 가난하여 의지할 바가 없고 역(役)이 다른 곳의 배나 되어, 심지어는 부모(父母)를 팔고 처자(妻子)를 팔며, 자기 자신이 품을 살고 동생을 파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팔린 자가 모두 58명이 되었습니다. 청컨대, 상평청(常平廳)의 공회(公會)에 붙인 모곡(耗穀)을 참작해서 나누어 주어 속환(贖還)하는 밀천으로 삼게 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이른바 어호(漁戶)로서 배를 부리는 일을 겸하는 격군(格軍)의 아내는 잠녀(潛女)라고 일컫는데, 1년 동안 관아에 바치는 것이 포작(鮑作)은 20필(疋)을 밀돌지 않으며, 잠녀(潛女)도 또한 7, 8필에 이르게 되니, 한 가족 안에서 부부(夫婦)가 바치는 바가 거의 30여 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전복, 각종 오징어, 분곽(粉藿)등을 파는 역(役)이 모두 이로부터 나와서 경영되고, 본고을[本官]의 장수와 병졸(兵卒)에 대한 지공(支供)과 공사(公私)의 수응(酬應)은 또한 이 숫자 이외에 있으니, 만약 별도로 변통(變通)하지 않는다면 무리들이 수년 동안 지탱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청컨대, 본도(本道)에서 회록(會錄)하는 상평청(常平廳)의 모전미(耗田米) 3백 석(石)을 얻어, 물건을 바꾸어서 바치는 밀천으로 삼게 하소서.”

하였다.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기를,

“팔린 자를 속환(贖還)하는 일을 시행하도록 허가하되, 이어서 금령(禁令)을 엄하게 하여 폐습(弊習)을 근절시키소서. 진상(進上)에 대가(代價)를 주는 일은, 매년 3백 석으로 삼으면 실로 잇대기 어려울 염려가 있으니, 3년 동안 기한하여 나누어 주어서 본전(本錢)은 보존하고 이자(利子)만 취하게 하여, 영구히 역(役)을 보충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sup>46)</sup>

비록 임금이 속환을 시켜준다 해도 이들의 삶의 짐은 여전히 산재해 있다. 제주

46) 『肅宗實錄』 숙종 28년 7월 12일(신유), 先是, 濟州守臣狀言: “本島三邑, 貧殘無依, 役倍他處, 甚至賣父母鬻妻子, 雇當身賣同生之境, 賣鬻者都合爲五十八名. 請以常平廳公會付耗穀, 參酌劃給, 以爲贖還之地.” 又言: “所謂漁戶兼行船格妻, 稱潛女, 一年納官者, 浦作不下二十疋, 潛女亦至七八疋, 一家內夫婦所納, 幾至三十餘疋, 而搥鰓、各種烏賊魚、粉藿等役, 皆自此出營, 本官將士支供及公私酬應, 又在此數之外, 若不別樣變通, 此類之得支數年難矣. 請得本道會錄常平廳耗田米三百石, 以爲買納之地.” 備局覆奏: “賣鬻者贖還事許施, 而仍嚴禁令, 以絕弊習. 進上給價事, 以爲每年三百石, 實有難繼之憂, 限三年劃給, 俾令存本取利, 永久補役.” 上可之. 풀이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을 인용했다.

민의 생활은 그 자체로 힘든 생활이다. 석복의 <潛女歌>에서 나타나는 관리들의 착취와 이형상의 장이나 행장에서 나타나는 제주 공납의 폐단은 제주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앞에서 살펴봤지만 제주의 토지는 척박하고 기후가 좋지 않아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 이는 식량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제주민의 삶이 나타나는 원인이 된다. 이와 함께 관리의 횡포와 공납의 폐단은 제주민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여건으로 제주민의 삶은 극도로 궁핍했다. 결국 이러한 궁핍과 어려움이 제주민들에게 비인륜적인 삶을 살도록 유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부모에게 불효하고 형제 자식을 팔아야 하는 처지는 제주의 풍속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 나타난 人災의 하나라고 봐야 할 것이다.

결국 <만언사>에 표현되고 있는 인륜이 없는 추자도민은 표면적으로는 예의 없는 추자도민의 표현일 수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사정으로 비인륜적 이어야만 했던 당시의 추자도민을 그리고 있다. 역으로 그것은 그 시대의 추자도민의 아픔을 표현했다고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속사미인곡>에서도 추자민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鳥鵲은 본딤 업고 烏鳶만 적괴며  
魚頭 鬼洞 𨮒흔 逋漢이를 만나보니  
野鹿의 性情이오 蠻貊의 語音일다  
相對 脉脉ᄃ야 무슴 말을 酬酌ᄃ고

<속사미인곡>에서도 역시 추자민의 언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또한 성정이 ‘野鹿’의 성정과 같다고 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추자도의 언어는 조금 다급하고 거친 것이 특징이다. 외지인이 접하는 추자도의 첫 인상은 이 언어로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추자도와 제주의 거칠고 급한 언어를 접한 외지인들은 쉽게 적응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부적응은 또한 추자도민과 제주민에 대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한 오해가 문학 속에 투영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언사>와 <속사미인곡>에 나타나는 추자도의 풍속 중에 일치하는 점은 언어

가 빠르고 급하다는 것이다. 이는 제주도의 방언과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았다. 외지인이 추자도나 제주에 들어와서 주민을 접했을 때 그들의 인상과 언어가 제주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제주의 방언이 빠르고 급하다는 것은 제주민의 인상마저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만언사>의 경우에는 추자도민에 대해서 곱지 못한 시선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언어와 함께 자신이 받은 푸대접이 그러한 표현을 나오게 하는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속사미인곡>의 경우에도 추자도민에 대해 언어에 대한 판단과 함께 오랑캐의 무리로 취급하고 있다. 심지어는 말을 걸만한 상대로 여기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추자도민의 방언이 외지인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사실이나 <만언사>의 경우처럼 문학으로 표현 될 때는 과장된 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V. 작가 의식

앞에서 살펴본 조건들 속에서 북곡과 안조원의 경우에는 같은 추자도에서 작품을 썼으며 북헌의 경우 제주에서 작품을 썼다. 추자도에서건 제주도에서건 경제적 여건과 격리된 조건은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물론 신분적 차이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음을 앞에서 살폈으나 북곡의 경우를 보면 신분적 차이보다 환경의 요인이 보다 작품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세 작가의 작품은 각각 다른 양상으로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고 있다. 북헌의 경우에는 관념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결백과 사모의 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북곡의 경우에는 북헌과는 다른 양상으로 관념의 세계와 함께 현실의 상황을 작품 속에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처지를 보다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는 관념의 세계가 북헌의 경우보다 적게 나타나면서 현실을 형상화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안조원의 경우에는 관념의 세계에 사로잡힐 여유가 없다. 바로 현실을 그림으로서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세 작품이 각각 다른 양상으로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세 가지의 관점에서 작품들을 살피고자 한다.

### 1. 관념의 형상화

북헌의 경우에는 정철의 <사미인곡>의 영향이 작품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난다. 최상은이 언급한 대로 송강의 <사미인곡> <속미인곡>과 북헌의 작품은 같은 짜임새를 가지고 있다.<sup>47)</sup> 공간의 배경을 천상계와 지상계로 표현한 것은 지상의 세계에 머물고 있는 자아가 천상의 세계를 그리워하며 동경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천상계의 설정은 송강의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에서 찾아볼 수 있다.

---

47) 최상은, 「연군가사의 짜임새와 미의식」, 『조선사대부가사의 미의식과 문학성』, 보고서, 2004.

최상은은 조위의 <만분가>와 송강의 양사미인곡, 오우인의 <자탄가>, 그리고 북헌 가사의 공통점을 작품 외적으로 작가가 관직에서 타의에 의해 물러나거나 쫓겨난 상황에서 창작되었다는 것과 작품 내적으로는 구조적인 면에서 시·공간 배경(과거와 현재, 천상계와 지상계)이나 이념과 현실의 관계를 이원적으로 설정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엇그제 님을 피셔 광한전의 올랐더니  
그더딕 엇디흐야 하계에 느려오니 <사미인곡>

천상 백옥경을 엇디흐야 니별흐고  
히다더 저믄날의 눈을보라 가시논고 <속미인곡>

천상계에서 하계로 내려온 謫降형의 내용은 송강의 가사에서 나타난다. 이는 현실의 세계가 아닌 천상의 세계를 설정해 자신이 추구해야할 대상이 살아있는 공간을 나타낸다. 이러한 공간은 현실의 공간이 아닌 관념의 공간일 수밖에 없다.

광한전 빅옥경의 님을 피셔 즐기더니  
나리틀 흐엇거니 직양인들 업술손가

<별사미인곡>에서도 역시 송강의 가사와 같이 천상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천상계에서 임과 이별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교태’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배가사에 천상의 백옥경과 옥황을 설정한 것은 현세의 임금도 옥황과 같이 고귀하고 절대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옥황은 세속의 인간들이 도전할 수 없는 절대적 권위와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자신의 삶의 의의를 지배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sup>48)</sup>

이러한 천상의 설정은 현실의 세계가 아닌 관념의 세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실과 관념이 만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과 관념은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현실의 세계에서 이루지 못하는 임과의 결합을 천상계의 설정을 통해 관념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절실한 욕망을 표현한 것이다. 결국 작품 속에서 화자는 현실의 세계는 표현하지 않고 관념 속에서 모든 상황과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

일백번 죽고죽어 썩가 갈니 된 후르도  
님 향흔 이 므음이 변홀손가

48) 이현주, 「유배가사의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나도 일을 가져 늬의 업슨것만  
어더 부용화 오슬 짓고 목란으로 느못 사마  
하틀기 땡세혀 녀 섬기라 원이러니  
조물 시기훈가 귀신이 회즈온가  
넉 팔자 그만하니 사툼을 원망홀가

임과 헤어진 이후에도 임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늘에 맹세하여 임만을 섬기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으며 자신이 처지가 造物이나 귀신이 해를 끼쳐서 된 것이라 여기고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답답함도 자신의 처지가 일어나는 원인을 알 수 없어 바로 다음 구절에서 자신의 결백을 드러내고자 하고 있다.

넉 몸의 지은 죄를 모르니 괴더 罪라  
나도 모르거니 늬이 어이 아도던고

현실의 부정적 요인, 즉 임을 볼 수 없는 부정적 요인은 작가로 하여금 더욱더 관념 속으로 몰아가게 만들고 있다.

누어도 싱각이오 안즈도 싱각이라  
아무도 이 싱각은 일각을 못이즐쇠

그러나 이러한 관념은 현실적으로 임과의 재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결과 화자는 더욱더 간절하게 임을 그리워하게 된다. 결국 “차생의 이러커든 후생을 어이알고”의 표현으로 현실의 불가능을 알고 후세를 기약하고 작품을 마무리 하고 있다. 후세의 모습은 ‘구름’, ‘바람’, ‘명월’, ‘명산’, ‘천심노목’, ‘지초’, ‘금옥명주’, ‘오현금’, ‘화류마’, ‘새짐승’, ‘티끌’ 등의 변신이 되어 임을 모시고 싶어 하는 의지, 이른바 연군에의 충념을 노래하고 있기까지도 한다.<sup>49)</sup>

---

49) 양순필, 앞의 책.

작품 속에 나타나는 이러한 절대자에 대한 의지는 결국 마무리 단계에서 꺾이고 만다. 다른 화자가 나오면서 작품의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이는 화자에게는 관념 세계, 즉 임에게 가는 희망적인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게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어와 이 각시님 그려도 그려흐다  
팔자를 어이호며 천륜인들 도망홀가  
더 호거니 덜 호거니 분별호여 무어스 호며  
구람이느 브람이느 되여늘들 무엇홀고  
각시님 잔 가득 부으시고 호 시름 이즈소서

앞의 화자는 관념의 세계에서 임과 만나는 것을 희망하며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등장하는 화자는 이러한 화자의 의지를 전환시키고 있다. 잔 가득 술을 마시고 현실을 잊어버리기를 말하고 있다. 이는 임금을 향한 결백주장과, 해배의 염원을 노래해도 현실에서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실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잠시 잊으려는 행위이다. 그런 상황에서 잠시 현실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화자가 가지고 있는 시름을 잊을 수 없듯 결국 현실 속에서도 관념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는 현실로 회기한다기 보다는 이질적인 화자를 등장시켜 현실로의 회기를 바라고 있으나 결국 관념의 세계에 놓여 있는 화자는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 2. 관념과 현실의 공존

북곡의 <속사미인곡>은 북현의 가사와는 다른 양상으로 자신의 처지를 그리고 있다. 북곡의 경우에는 가사 전반적으로 관념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결백만을 주장하거나 임에게로의 회귀 즉 자신의 복귀를 주장하지 않는다.

삼년을 님을 써나 회도의 뉴락하니  
내언제 무심하여 님의게 득죄한가  
님이 언제 박정하여 날 대접소히 한가

첫 구절부터 천상계의 설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 세계에서 경험한 세계를 그리고 있다. 이는 작가의 시선이 관념적인 세계가 아니라 현실적인 눈으로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는 눈이 또한 현실 속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의 결백을 언급한다거나 절대자 격인 임이 자신을 믿고 있다는 관념, 임만은 자신을 믿고 있다는 관념의 세계가 표현되기도 한다.

내 얼굴 곱뎠던지 질투홀산 중녀로다  
유한한 이내몸을 선음한다 니르노쇠  
.....  
참언이 망극하니 님이신들 어이홀고  
시호도 성의하고 증모는 투져혀져  
우리님 날 밋기야 세상의 뉘 비홀고

자신의 처지는 절대자인 임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중녀의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사대부의 관념인 충을 버리지는 못하고 다른 방향에서 자신의 처지를 풀어가려는 화자의 의도적인 모습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작가의 관념의 세계는 현실의 세계와 공존하며 나타난다. 북헌의 경우 작품 전체가 관념에서 일어나는 세계를 그리고 있는데 반해 북곡의 경우에는 현실의 무게가 그대로 작품 속에 투영된다.

이현주는 <속사미인곡>의 현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처럼 <속사미인곡>은 유배의 원인으로부터 가족과의 이별 장면, 유배지로 향하는 노정, 유배지의 험난한 환경 및 생활상에 이르기까지 작가가 실제로 경험한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을 시간적 순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기행가사의 면모를

찾을 수 있다.”<sup>50)</sup> 이처럼 <속사미인곡>은 관념의 세계를 그리고 있으면서 현실의 모습을 작품 속에 그리고 있다. 이는 관념과 현실이 공존하는 모습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최상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신의 사상적 기반과 정치적 지위를 굳게 지키고 회복하고자 하는 의식을 길게 나타낸 이들 작품은 표현면에 있어서는 관념성을 탈피하여 경험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다. 유배과정과 유배지에서 겪은 생활을 하나하나 열거하여 예상치 못하고 당한 현실적 고통에 당황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 놓았다.”<sup>51)</sup> 이는 북곡의 가사가 갖는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곡의 가사에는 현실의 문제가 그대로 투영되어 경험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선산의 잠간드러 통곡하여 배별호고  
성서구터의 가묘의 하직하니  
원근 친척이 손잡고 니별홀시  
靑雲舊朋은 안둥의 드무도다  
.....  
호남길 더위잡아 蘆嶺의 올라쉬어  
북으로 도라보고 두세번 탄식하니  
浮雲이 蔽日하야 경국을 못볼노다

사신으로 다녀왔다가 유배를 떠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친척들과 이별하고 있는데 친구들의 모습은 드물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처지가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을 그리고 있다. 소재적인 측면에서도 북현의 가사와는 다르게 자신이 귀양을 가는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다. 이는 북곡의 시선이 관념의 세계와는 별도로 현실에 머물고 있고 작품 속에 투영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의식은 유배지의 자신의 모습에서는 더욱더 처절하게 나타난다.

---

50) 이현주, 「유배가사의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51) 최상은, 앞의 책, 같은 쪽.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곡의 유배지에서의 모습은 의식주의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부터 어려움을 토로한다. 도착해서 식량의 어려움과 집의 좁고 벌레들이 들끓는 상황, 땀감조차 어려운 지경 등을 토로하는 것은 관념의 세계와는 별도로 현실의 문제에 시선이 옮겨져 있기 때문이다.

말만한 좁은 방의 조슬도 만홀시고

팔척당신이 구버들고 부거나며

.....

냥식도 뽕절거든 반찬이야 의논하며

염장을 못먹거든 어육이야 보살소나

도동슈십년의 일년초 희한하다

묘석밥 못먹일제 방답기 생각홀가

.....

샤갈오공은 스벽의 종횡하니

.....

북곡의 이러한 현실에서 소재를 찾는 관점은 현실을 수궁하지 못하고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만을 보여주고 있는 북현과는 다르다. 이는 이미 북곡이 현실의 상황을 부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계 북귀나 절대자격인 임이 자신을 알아주기 바라는 동시에 현실의 문제를 수용하는 이중적 작가 의식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의식은 최상은이 지적한 대로 <속사미인곡> 속에서 여성적 화자와 남성적 화자가 공존하면서 나타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sup>52)</sup>

### 3. 현실의 형상화

---

52) 최상은, 앞의 책, “<사미인곡>류 작품의 소재는 여성적 소재로 일관되어 있는 데 비해, <속사미인곡>의 소재는 남성, 특히 유배당한 중국의 인물과 관련된 소재와 여성과 관련된 소재가 혼재하고 있어서 정서 연결이 부자연스럽다”

앞의 두 가사의 작가와 신분이 다른 안조원은 사대부 양반이 가지고 있는 관념의 세계를 일부 투영시키고 있으나 이는 작품 전체적인 관점에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관념과 현실의 세계가 공존하기 보다는 지극히 현실의 생활을 작품 전체에 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일부 관념의 세계 또한 앞의 두 작품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앞의 두 가사에는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몸의 지은 죄를 모르니 괴더 죄라<별사미인곡>’나 ‘질투홀산 중녀로다<속사미인곡>’와 같이 자신의 죄가 없음을 표현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수쇄죽쇄 하온 후에 사옥 중에 드단말가  
 나의 죄를 헤아리니 여산여해 하겠고나  
 아깝다 내 일이야 애달프다 내 일이야  
 평생일심 원하기를 충효겸진 하겠더니  
 한 번 일을 그릇하고 불충불효 다 되겠다

그러나 <만연사>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앞의 두 가사와는 다르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자신이 이상으로 하는 궁궐로의 복귀 즉 관념의 세계로의 복귀를 바라거나, 자신의 결백을 말하면서 돌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현실의 상황을 직시하는 관점에서 서술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의 직시는 바로 의식주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아무런 연고도 없고 도와줄 이 없는 화자는 자신의 상황을 어렵사리 헤쳐 나가고 있다.

저 주인 거동보소 코웃음 비웃으며  
 양반도 할일 없네 동냥도 하시었고  
 귀인도 속절 없네 등짐도 지시었고  
 밥싼 노릇 하오시니 저녁 밥 많이 먹소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동냥도 한 번이지 빌긴들 매양하라  
평생에 처음이요 다시 못할 일이로다  
차라리 굶을 진정 이 노릇은 못하리니

유배자를 놀리는 주인의 태도가 나타난다. 이러한 주인의 비아냥거림을 받아야 하는 유배자는 비참한 심정이 된다. 자신이 겨우 용기를 내어 동냥을 했으나 이러한 일은 못하겠다고 한다. 유배자는 비록 중인 계층이지만 궁중의 대전별감을 지냈다.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구결은 쉽게 내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유배자는 모멸감을 무릅쓰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 동냥에 나선 것이다. 삶의 벼랑에서 자신이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된다.

무삼 일을 하잔 말고 신삼기나 하자하고  
짚 한단 추려다가 신날부터 꼬아보니  
조희 노도 모르거든 셋기꼬기 어이하리  
다만 한 발 다 못꼬아 손바닥이 부르트니  
할 리 없어 내어 놓고 긴 삼대를 베껴내어  
자리 노를 배와 꼬니 천수만한 이 내 마음  
부칠 데 전혀 없어 노꼬기에 부치었다.

중인의 계층이나 유배자는 대전별감으로 지내면서 이런 허드렛일을 하지 않았다. 동냥을 하고 주인에게 핀잔을 들은 뒤 동냥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난 후에 유배자가 한 일이다. 마음 붙일 곳이 없어서 노꼬기에 붙었다고 말하고 있다. 유배자는 유배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노동을 선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배자에게 관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새벽서리 치는 날에 외기러기 슬피우니  
고객이 먼저 듣고 임 생각이 새로와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임의 얼굴 보고지고  
나리 돌힌 학이 되어 날아가서 보고지고

만리장천 구름되어 떠나가서 보고지고  
낙낙장송 바람되어 불어가서 보고지고  
오동추야 달이되어 불어가서 보고지고  
분벽사창 세우 되어 뿌려서나 보고지고  
추월춘풍 몇몇 해를 주야불리 하옵다가  
전신만수 머다 머되 소식조차 둔절하니  
철석간장 아니어든 그리움을 견딜소나  
어와 못 잇을다 입을 그려 못 잇을다

보고지고의 반복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해학적으로 나타내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화자가 자신의 관념의 세계로 복귀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내용이라 말할 수는 없다. 앞에서 살펴본 북헌과 북곡의 작품의 경우 자신의 처지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는 <만언사>의 화자와는 다르다. 북헌과 북곡의 경우에는 자신의 신념 즉 관직에 나아가 자신의 이념을 실현시키려는 의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만언사>의 경우에는 단순히 자신의 처지를 벗어나고자하는 의지의 발현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작품의 마지막에 가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내 고생 한 해 함은 남의 고생 십년이라  
흥즉길함 되올는가 고진감래 언제 할고  
하나님께 비나이다 설은 원정 비나이다  
책력도 해 묵으면 고쳐 쓰지 아니하고  
노호염도 밤이 자면 풀어져서 버리나니  
세사도 묵어지고 인사도 묵었으니  
천신만사 탕척하고 그만 저만 서용하사  
끊쳐진 옛 인연을 고쳐 잇게 하옵소서

앞의 두 가사에서는 절대자 격인 ‘임’이 나타나면서 ‘임’을 사모하고 그리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만언사>의 경우에는 임이 절대자가 아니다. <만언사>에서의 ‘임’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현실 세계의 ‘임’일 뿐이다. 결국 화자는 절대자인 하나님을 끌어와서 임과의 해우를 빌어 자신의 간절한 소망 즉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별사미인곡>과 <속사미인곡>의 임은 이중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서원섭이 말하는 것처럼 일차적인 모습은 외부적인 모습은 연인에 해당하고 내부적인 모습은 군주에 해당한다.<sup>53)</sup> 그러나 <만언사>에서의 임은 절대자의 神權을 이미 잃어 버렸다. 이는 반드시 임금이어야 한다는 관념을 벗어나게 한다. 즉 <만언사>에서의 임은 독자들이 읽을 때 현실 속의 ‘임’이 될 수 있다. 이는 ‘임’의 존재가 重義的인 의미를 앞의 두 가사 보다 더욱 강하게 가질 수 있게 한다. 곧 작자가 머물던 곳의 어떤 ‘임’이 될 수 있고, 당시의 지존인 ‘임금’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중의성의 확보를 통해 독자에게 더욱더 다가갈 수 있었을 것이다.

<만언사>의 작자는 중인 계층이다. 이는 작품 속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양반 사대부와 달리 현실을 인식하고 현실의 세계에서 안주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게 만들었다. 이런 현실의 형상화에 있어서 작자는 여러 가지 장치를 더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윤성현의 지적<sup>54)</sup>대로 독자들에게 익숙한 전고를 차용함으로써 독자의 작품 몰입을 도와주고 있다. 이러한 장치와 현실을 담은 내용은 여러 독자층을 확보한다. 작품 후기에 나타나는 내용<sup>55)</sup>에도 이러한 현상은 찾을 수 있다. 조선 후기 문학은 장르가 혼효되어 작품끼리 유행구·관용구를 주고받는다. 특히 잡가에서는 ‘낮익은 것을 자극하기’의 형태를 취하여 ‘통속성’을 확보한다.<sup>56)</sup> 이와 유사하게

53) 서원섭, 「사미인곡계 가사의 비교연구」, 『가사문학론』, 형설출판사, 1983.

54) 윤성현, 「동양문고본 만언사 연구」, 『열상고전연구』, 태학사, 2005.

“<만언사>는 그때 문학지식의 보물창고 구실을 맡기도 하였다. 998행이라는 장편의 덕을 보기도 하였지만, 작가는 임금을 포함한 독자와의 소통을 위해 껍 에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정황은 몇 가지로 짚어볼 수 있다. 우선 당대의 고전문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바, 중국의 고대민요를 비롯하여 序賦辭詩 등과 우리의 궁중악장과 시조·사설시조·가창가사 등이 작품 곳곳에 녹아 있다. 또 당시 독자들에게 익숙한 전고를 차용함으로써 독자의 작품 몰입을 도와준다. 그리고 다양한 수사 기법을 통해 작품에 윤기를 더해준다.”

55) 도원의 숙모와 사촌누의 다 뒤전상궁이라 이 글을 보며 슬허하니 상이 위연이 누상의 울나 비회호시며 보시니 무수한 궁녀 둘러안져 혼 칙을 둘러보고 두낫 상궁은 오열체옴하고 모든 궁녀는 손뼉쳐 간간 절도하며 혹 탄식하고 칭찬호야 자못 분분호거늘

56) 김학성, 「잡가의 생성기반과 사설 염움의 원리」, 『신역 고전시가론』, 새문사, 2003.

<만연사>에서도 유행구와 관용구 등을 받아들여 이러한 통속성의 확보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당시의 궁중 여인들에게 많이 읽혔을 것이다. 후에는 소설인 <청년회심곡>에 삽입되어 흡수되기도 한다.

## VI. 결론

지금까지 제주 유배가사인 <속사미인곡>·<별사미인곡>·<만언사>에 나타난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절해고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주는 고려시대에 이민족의 유배지로도 활용되는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후 조선시대에는 왕족·정치인·관리·학자들을 비롯하여 범죄자와 월경범인에 이르기까지 각종·각양의 죄를 범한 사람이 유배를 오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주는 경제적으로 윤택하지 않았다. 땅이 척박하고 기후가 좋지 않아 농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식량을 제대로 조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종종 기근에 시달리게 된다. 제주의 어려움은 중앙에도 전달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토에서 식량을 지원한다. 그러나 제주의 기근이 이미 고질화 되어 있어 식량의 조달로는 기근을 해결할 수 없었다. 제주의 어려움은 바로 유배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주의 지리적 환경은 비단 유배자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정자로 온 문인들도 제주에 오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圭庵 宋麟壽의 경우 3개월의 재직기간 중 <濟州有吟>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남기는 데, 화자의 모습이 괴로움에 차있다. 그 외에 다른 문인들의 시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나타난다. 본토에서 격리된 제주의 자연환경은 유배자는 물론 위정자까지도 불편한 심기를 나타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심기는 본토를 향한 향수로 나타나게 된다.

제주의 지리적 격리성과 제주 경제의 어려움은 유배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정서적으로는 향수를 나타나게 하고 경제적으로는 유배지에서의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신분에 따라 달리 나타나게 된다. 양반 사대부인 北谷 李眞儒의 경우에는 유배지에서의 생활이 편하지만은 않지만 거처를 마련함에 있어서 추자민이 노역을 해준다. 또한 위리안치 유배의 영향도 있으나 마찰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안조원의 경우에는 북곡의 경우와는 다르게 추자민과의 마찰이 자주 일어난다. 거처를 마련함에도 받아주는 집이 없었으며 강제로 맡긴 집에서는 온갖 수모와 박대를 당하고 있다. 후에는 동냥을 하는 유배자를 ‘귀양다리’라 칭하며 놀리는 아이들도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은 안조원의 죄가 과렴치죄

라는 데서 연유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양반 계층과 중인 계층의 차이에서 연유하는 것이라 짐작된다.

<속사미인곡>과 <만언사>는 추자도를 배경으로 한 유배가사이다. 그러므로 두 작품의 풍속을 살피는 것은 추자도의 풍속을 살피는 것일 수 있겠으나 제주도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과 제주와 같이 절해고도의 특성을 가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제주의 풍속과 연관 지어 살펴보았다. 또한 제주와 관련된 다른 사료와 작품을 통해 근거를 확보하였다. 이에 4장에서는 가사에 나타난 제주의 향토 문화라는 제목으로 제주의 풍속을 비슷한 시기의 다른 작품과 연관 지어 살펴보았다.

첫째, <속사미인곡>에 나타난 주거지의 모습과 <만언사>에 나타난 주거지의 모습으로 봤을 때 추자도의 주거생활은 매우 열악하다. 좁은 집과 벌레가 득실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의복도 역시 여건이 좋지 못해서 만언사의 경우 유배자가 사계절을 같은 옷을 입고 지내고 있어도 주민이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한다. 김춘택의 한시에서도 제주의 여인이 색바랜 찢어진 치마를 입은 모습이 그려진 것으로 보아 제주의 여건도 그리 좋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제주의 주거생활과 의복은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둘째, 두 가사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아 식생활도 넉넉하지 않다. <만언사>의 경우 집주인과의 마찰이 일어나는 기본적인 원인은 식생활의 어려움에서이다. 급기야는 유배자가 구걸을 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제주민의 식생활은 석복 신광수의 시의 내용에서 끼니를 구하지 못해 나무껍질을 벗기는 모습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목사로 왔던 정언유에 의해 지어진 <탐라별곡>에서도 제주민의 어려움은 찾을 수 있었다.

셋째, 두 가사를 통해 추자민의 풍속을 살펴보았다. 두 유배가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풍속의 일면은 방언에 관한 것이다. 北谷의 경우 추자민의 특징을 언어가 조금 다급하고 거칠며 성정이 野鹿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만언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안조원의 경우는 추자민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여과 없이 작품 속에 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추자민의 성정이 일부 표현되긴

했으나 일부는 자신이 겪은 추자민의 괘시를 가사 속에 담은 내용일 수 있다. 반면 제주의 풍속에 대해서는 다른 시가에서도 역시 두 유배 가사와 비슷하게 표현되고 있어서 외지인에게 비취지는 모습은 그리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주 언어가 빠르고 거칠어서 외지인에게 심어주는 인상이 좋지 않음에서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추자도와 제주의 좋지 않은 자연환경과 문화적 배경 속에서 유배자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작품을 썼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5장이다. 이를 통해서 비슷한 조건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각각의 작품들의 특징을 들어 살펴보았다. 첫 번째 장에서는 ‘관념의 형상화’라는 제목으로 <별사미인곡>의 경우에 현실 인식은 나타나지 않으며 단지 자신의 관념만 작품 속에 형상화 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절대적 ‘임’에 대한 사랑과 자신의 무죄를 그리고 있다. 이러한 사랑은 현실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관념의 세계에서 확보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관념과 현실의 공존’이라는 제목으로 <속사미인곡>을 살펴보았다. 이 작품에서는 작가 의식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중의 눈으로 작품에 나타난다. 이는 여성적 화자와 남성적 화자가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으로도 형상화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지를 이루려고 하는 작가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러한 의지의 표현은 관념의 세계를 그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현실의 모습을 작품 속에 투영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이중적인 작가 의식이 서로 공존하며 나타나는 것이 <속사미인곡>이다.

마지막으로 ‘현실의 형상화’라는 제목으로 <만언사>에 나타난 작가 의식을 살펴보았다. 안조원의 경우 앞의 작가와는 다르게 중인의 신분으로 자신의 이상향을 펼치려는 욕구는 없고 단지 자신의 현실 즉 유배의 현실에서 구원되기만을 바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욕구는 절대적 ‘임’을 설정하지 않고 오히려 ‘임’보다 높은 하나님을 등장시켜 ‘임’과의 화해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필자는 제주의 환경적인 요인을 살피고, 유배 가사 속에 나타난 제

주의 생활상을 찾았다. 그리고 그 환경과 생활 속에서 작자들이 어떤 의식으로 작품을 지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속에서 제주 문학의 소재적 측면인 자연환경과 어려운 현실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각 작품 속에 나타나는 작가 의식의 특질을 찾아 제주 유배가사가 갖는 작가 의식의 다양성을 모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주문학의 중요한 기틀이 되는 산수문학은 다루지 못했다. 이 점이 필자 연구의 한계점이다. 제주인의 문집이나 위정자의 문집 또는 유배인의 문집을 살펴보면 반드시 산수시와 산수유기와 산수소품<sup>57)</sup>이 나타난다. 차후에 계속된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면을 살펴서 명실상부한 제주문학의 소재적 특질을 찾아보고 유배가사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작품에서 나타나는 작가 의식을 연구하고자 한다.

---

57) 손오규, 『산수문학연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 ※참고문헌

### <자료>

『朝鮮王朝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高麗史』

김봉옥·김지홍 역, 『옛 제주인의 표해록』, 전국문화원연합 제주도지회, 2001.

김익수 역, 『南槎日錄』, 제주문화원, 2001.

金春澤, 『北軒集』

김희동 역, 『남사록』, 영가문화사, 1992.

김혜우 외, 『고려사탐라록』, 제주문화, 1994.

양순필 편, 『耽羅志』,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1.

吳文福 編著, 『瀛洲十景』, 제주문화, 2004.

吳文福, 『耽羅詩選』, 제주문화, 2001.

吳文福 편, 『瀛洲風雅』, 제주문화, 1989.

이병기, 「별사미인곡과 속사미인곡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982.

백규상 역, 『三吳詩集』, 제주문화, 2003.

제주문화원, 『역주 증보탐라지』, 제주문화원, 2005.

제주도사연구회, 『제주도사연구』 제8집, 1999.

李家源 外, 『詳論 歌辭文學』, 단음출판사, 1985.

<단행본>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4』, 탐구당, 1995.
- 김기동 임기중 共編著, 『고전시가선』, 교학연구사, 1984.
- 김봉옥, 『증보제주통사』, 세림, 2001.
- 김성숙 외,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현지학술조사 보고」, 『백록어문 8』,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학회, 1991.
- 김익수 역, 『남유록·달고사·탐라별곡·훈민편』, 제주문화원, 1999.
- 김주곤, 『한국가사 연구』, 국학자료원, 1998.
- 김학성 외, 『신역 고전시가론』, 새문사, 2003.
- 변승규, 『제주도사략』, 제주문화, 1992.
- 孫五圭, 『山水美學探究』, 부산대학교출판부, 1998.
- , 『山水文學研究』, 제주대학교출판부, 2000.
- 서원섭, 『가사문학론』, 형설출판사, 1983.
- 신경림 외, 『松江文學研究』, 국학자료원, 1993.
- 신용준, 『이형상 제주시문선』, 탐라목석원, 1999.
- 梁淳秘, 『濟州流配文學研究』, 제주문화, 1992.
- 양진건,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제주도 유배인 열전』, 문학과 지성사, 1999.
- 吳文福, 「瀛洲十景 小考」, 『제주도』 90호, 1991.
- 오성찬, 『제주의 마을-추자도』, 반석, 2002.
- 이성무, 『조선시대당쟁사1·2』, 동방미디어, 2000.
- 임기중, 『한국가사문학연구사』, 이회문화사, 1998.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4』, 지식산업사, 2005.
- 조운제, 『한국문학사』, 탐구당, 1988.
- 최상은, 『조선사대부가사의 미의식과 문학성』, 보고사, 2004.
- 허남춘, 『古典詩歌와 歌樂의 傳統』, 월인, 1999.

<논문>

- 강경호, 「서민가사의 실제성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02.
- 고행미, 「추자도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특징」,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김상조, 「송강 정철연구-삶의 의식변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1.
- 김유경, 「만언사 연작연구」, 『연민학보4』, 1996.
- 金時鄴, 「북천가연구」, 성균관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 金正柱, 「조선조 유배시가의 연구」, 한남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柳年錫, 「가사문학의 역사적 연구」, 조선대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3.
- 柳成泰, 「萬憤歌와 萬言詞의 比較 研究」,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 손오규, 「歌辭의 문학교과지도 視點 ; 상춘곡, 사미인곡, 우부가를 중심으로」, 『백록어문15집』, 백록어문학회, 1999.
- 尹貴燮, 「유배가사의 양극」, 『동대논총』 2집, 동덕여대, 1971.
- 윤재철, 「이진유의 속사미인곡 연구」, 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2.
- 尹亨德, 「만언사연구」, 단국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 이재식, 「만언사 이본연구」, 『논문집』, 건국대학교 대학원, 1991.
- 李宰植, 「유배가사연구」, 건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이현주, 「流配歌辭의 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 趙誠香, 「流配歌辭 考察」,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崔相殷, 「유배가사의 작품구조와 현실인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83.

<Abstract>

**A Study on Gasa, a Form of Korean Verse, Written by Exiles at a Penal Colony, Jeju Island**

**- Centering around Byeolsamiingok, Soksamiingok and Maneonsa -**

**Sohn Gi-bum,**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Sohn, O-Gyu**

This research work was aimed at investigating indigenous culture in Jeju Island described in Byeolsamiingok, Soksamiingok and Maneonsa, and writer's consciousness.

In Chapter 2, historical, natural and economical environments of Jeju Island were examined. And through these studies, situations of the island in 18th century could be figured out. In this period of time, Jeju had been suffered from economic difficulties. And long distance from inland province and sense of isolation made both exiles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feel melancholy and homesick. These were vividly expressed in their works. Next, backgrounds of creation of literary works were investigated. Along with these studies, backgrounds of those times when three verses were written and also personal backgrounds of writers were examined.

In Chapter 3, attitudes of residents toward the exiles were examined, especially focusing on deviation of residents' attitude depending on the status and previous hierarchical position of exiles. If they were from Yangban class (aristocrats) or were former higher ranking officials, there were no conspicuous conflicts or troubles with residents. However, in case exiles were from a middle class family, there were some troubles between the exiles and residents, so that exiles had to endure hard times therefrom. These facts were expressed in their works.

In Chapter 4, indigenous cultures depicted in the verses were reviewed. In case

of the writer of Soksamiingok and of Maneonsa, they were not transported to Jeju Island, but to a small island on the way sea route to Jeju Island called Chuja Island, so they live at a place of exile in Chuja Island. However, there were continuous exchanges between Jeju Island and Chuja Island, and both were common in the aspect of isolated island from the outside world. Under such conditions, there was a high likelihood that two islands had generated similar cultures to each other. And referring to other poetries written in a similar period, indigenous cultures of Jeju Island were analogized, so that it was able to examine the prospect of theme or materials of Jeju literature. When inferring cultures in relation to cloth, foods and housing in Jeju Island based on the contents of verses and historical records, people in Jeju Island in those days carried on a needy life.

In Chapter 5, writer's consciousness described in the works were investigated. Three works contained each different consciousness of writers. In case of Byeolsamiingok, writer tried to shape a conceptual world, not a real world. In case of Soksamiingok, conceptual world and real world were depicted as though two worlds coexist. In case of Maneonsa, real world was expressed throughout the works. Previous two verses are written by exiles who were from aristocratic class, and it expressed their desires to return to the real world to which they previously belonged. Such desires and cravings were depicted and shaped by means of conceptual expression, and as in Soksamiingok, the writer depicted hardships in real world or sometimes he indulged in conceptual expressions. In case of Maneonsa, the writer depicted himself and shaped his present status under a difficult circumstance that would not allow him to return to his middle class life. Through this, the writer revealed his coerced reality in his works.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6.